

3일 Market Index

↓ 코스피

6257.45

(-338.00)

↑ 코스닥

737.35

(+17.59)

↓ 금리 (국고채 3년)

3.742

(-0.016)

↑ 환율 (원·달러)

1429.50

(+5.50)

# 공시지가 14억 미만 비과세… ‘초고가 주택’ 최대세율 5%

## 2026 세제개편안

거주 중심 보유세 정상화 방침  
‘공시지가 기준’ 과세표준 제시  
미거주 주택 양도세 공제 축소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주택자 일지라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을 시세 40억 원 내지 5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시세 30억 안팎의 주택 보유자 부담은 완화되고 20억 이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집값과 관련없이, 주택을 보유하되 실제 살고 있지는 않을 시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 축소를 감내해야 한다.

정부는 이처럼 부동산 과세에 초점을 둔 ‘2026 세제개편안’을 3일 발표했다. 일단 거주용 1주택은 최대한 보호한다. 그러나 거주용이더라도 일정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를 비롯해, 비거주 주택·다주택에 대한 보유세(이 중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종합세 인상안

1·2주택자 공시지가 기준. 단위: %

TAX

HOUSE

| 공시지가   | 2026년 | 2027년 | 2028년 |
|--------|-------|-------|-------|
| 6~12억  | 1.0   | 1.3   | 1.3   |
| 12~25억 | 1.3   | 1.5   | 2.0   |
| 25~50억 | 1.5   | 2.0   | 3.0   |
| 50~94억 | 2.0   | 2.7   | 4.0   |

자료/ 재정경제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지난주 가진 사전 언론설명회에서 “집은 바잉(buying), 즉 사는 것이 아니라 리빙(living), 즉 사는 곳이라는 원칙하에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되도록 부동산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일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의 경우 시세 20억 원 수준(공시지가 14억 원)까

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이어 시세 30억 원 수준(공시지가 23억 원)까지는 보유세를 완화한다.

반면 일정가액 이상의 1주택에 대해선, 거주하고 있더라도 집값이 40억~50억 원(공시지가 29억~35억 원)을 넘을 시 보유세를 인상한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관련 통계에 따르면 시가 40~50억 주택은 상위 0.3%에 해당한다”며 “약 4만 호 내지 4만~5만 호 정도의 주택이 시가 40억~50억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게 과세 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재경부는 ‘공시지가 기준’의 과세표준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의 언급대로, 세율 체계가 현행 주택 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바뀐다. 상위 개념의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로 나뉘는데, 종부세는 이른바 ‘가중 부과’ 성격의 국세에 해당한다.

공시지가 6억~12억 원은, 보유세가 올 해 기준 1.0%에서 내년 1.3%로 소폭 오른 뒤 후년에도 1.3%로 동결된다.

이어 12억~25억은 1.3%(2026년)에서 1.5%(2027년)와 2.0%(2028년)로 계단식 인상이다. 25억~50억은 1.5%→2.0%→3.0%로 인상 폭이 더 크다. 정부가 제시한 ‘시세 40억~50억’이 바로 이 구간(공시지가 25억~50억)에 포함된다.

또 공시지가 50억~94억은 2.0%→2.7%→4.0%, 94억 초과는 2.7%→3.5%→5.0%라는 2년간의 오름폭이 제시됐다.

이는 모두 1, 2주택자 기준이다. 3주택자 이상은 내년까지는 과세액이 더 크지만 후년에는 1, 2주택자와 같아진다.

아울러 비거주 주택 및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상향한다.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한도를 현행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춘다. 또 다주택은 현행 9억 원과 같으나, 우선 4억 부분만 공제한 뒤 나머지 5억에 대해선 거주주택 비중을 고려해 산정한다.

양도소득세 공제수준도 합리화한다. 특히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공제가 대폭 줄어든다. 재경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공정 과세’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외 분야에선 세제 개편을 통해 경제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추진해 잠재성장을 반등을 꾀한다. 녹색전환·경제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판매량에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한다.

벤처 지원도 강화한다. 재경부는 “중기를 졸업한 후에도 일정 기간, 일정 수준의 세제지원을 유지할 계획”이라며 “벤처투자 세제지원 요건(투자대상 벤처기업 업역 기간)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층을 위한 주거비 자산형성을 전폭적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 월세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공제도 늘린다.

결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세제 불이익도 개선한다. 혼인으로 인해 경차 2대를 보유하게 된 경우 1대에 대한 유류세 환급을 적용할 방침이다. 중산층·서민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 세제 지원을 늘리고 소득세의 기본공제 대상자 범주를 늘리기로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역대급 폭등 코스피 5% 급락 ‘숨고르기’

반도체주 약세… 차익실현 매물 증가

송파구, 30억 이상 아파트 거래 2위

서울에서 올해 30억원 이상 거래된 고가 아파트 건수에서 1위인 강남구에 이어 송파구가 서초구를 제치고 두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 총 4만 518건 중 30억원 이상은 1886건으로 전체 거래의 4.7%를 차지했다. 이 중 강남구가 612건(32.4%)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481건·25.5%), 서초구(477건·25.3%)의 순으로 알려졌다. 3월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뉴시스

계속되는 반도체주 급등락에 투자자들의 피로감과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5.12% 내린 6257.45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조3276억원, 1조3922억원씩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이날 3조6297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31일 코스피가 18% 가까이 급반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가운데, 미국 국제 금리 급등이 투자 심리를 압박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관계자들의 대파적 발언과 인플레이션 우려로 지난달 31일 미 10년물 국제 금리는 4.75%까지 올라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이 주식보다 안전한 채권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커지고, 높은 성장 기대를 반영해 주가가 많이 오른 반도체·AI 종목은 상대적으로 더 큰 하락 압력을 받는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상장 이후 확산한 ‘한국 반도체 추격론’과 중국이 반도체 노광 장비의 ‘자급자족’ 가능해졌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

metro



/신하은 기자 godhe@

metro

## 5대 은행, 주담대·마통 잔액 큰 폭 증가

주담대 11개월만에 최대 폭 상승  
주택 매입·주식매수 수요 등 영향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잔액이 나란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수와 입주 수요가, 마이너스통장은 증시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 수요가 각각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3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 등 5대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가계

대출 잔액은 778조9791억원으로 전월 증가폭(4조1378억원)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7조9411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2조7955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5년 8월(3조7012억원)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별 증가 폭은 5월 1조1437억원, 6월 1조7576억원에 이어 커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에는 지난 5월 급증한 아파트 거래가 시차를 두고 실제 대출

실행으로 이어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앞두고 주택 거래가 집중되면서 관련 잔금대출 수요가 지난달 대거 유입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만2150건으로 집계됐다. 월 7000~9000건 수준이던 올해 1~4월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규모다.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30일 기준 마이너스통장 잔액

### 메트로 한줄뉴스



- ▲ 정청래, 강릉 토크콘서트서 金 후보 겨냥… “배신에 총량 없다” /사전 뉴시스
- ▲ 김민석, 전복서 “명청대전 갈등 한달 지속해도 나라 명운 흔들려”

- ▲ 여당, “형소법 개정안, 현행보다 훨씬 진일보”… 당내 TF 가동
- ▲ 이준석, “보안수사권 폐지는李 대통령 자기부정… 거부권 써야”

- ▲ 한병도 원내대표 “국힘, 형소법 거짓 선동 어처구니 없어”
- ▲ 조국혁신당 “민생 혁신 ‘민생기병대’ 발족, 1호 의제는 ‘폭염’”



# 신격호 ‘무경계 경쟁우위’ 재조명

(롯데 창업주)

## AI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이정표

세계경영사학회 연구성과 공유  
경계를 넘나드는 성장전략 주목  
참석자들 국제 공동연구 의견 제시

롯데는 지난달 30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2026 세계경영사학회(World Congress of Business History)’에서 신격호 롯데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조명하는 연구가 발표됐다고 3일 밝혔다.

세계경영사학회는 북미와 유럽, 일본 등 세계 각국의 경영사 연구자들이 4년마다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국제학술 대회다.

이번 연구는 오사카경제대학 백인수 교수가 ‘무경계 경쟁우위(Boundless Advantage): 국경을 넘나든 롯데 창업주 신격호의 기업이여정에 대한 동태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했다. 백 교수는 지난 2023년 ‘경계 없는 시장 개척자, 롯데 신격호’를 주제로 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연구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무경계 경쟁우위’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를 재조명했다.



신격호  
롯데 창업주

무경계 경쟁우위는 특정 경계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국경, 산업, 조직 등의 경계를 넘나들며 축적한 지식과 자원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역량을 의미한다.

연구에서는 신 창업주의 삶을 청년기, 중년기 초·후반, 노년기 등 네 단계로 구분해 각 시기마다 직면한 경계와 이를 극복한 사례를 분석했다. 문학, 정치, 산업, 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경계를 넘어 축적한 경험과 역량이 롯데그룹 성장의 배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연구는 현대 경영인을 위한 시사점도 제시했다. 경계 밖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학습해 조직에 접목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후임자와 미래 인재를 육성하며, 적극적인 권한 위임과 함께 최종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표 이후에는 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을 주제로 참석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오스트리아 그라츠대학 크라우처 교수는 발표 자료 공유를 요청하며, 다른 국가의 초국가적 기업가정신 사례와 비교하는 국제 공동연구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백 교수는 “신격호 창업주의 기업가정신은 오늘날 기업가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례”라며 “창업을 꿈꾸는 기업가라면 AI 시대에도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학습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며, 사회와 미래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포스코인터, LNG 밸류체인 고도화

### 에너지사업 확장·수익성 개선 박차

생산부터 운송·저장·발전까지 연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액화천연가스(LNG) 전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에너지 부문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가스 생산부터 조달·운송, 저장, 발전까지 연결된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수익성과 성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3월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호주 가스전과 광양 LNG터미널, 인천 LNG복합발전소를 잇는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호주 에너지 자회사 세넥스에너지 증산과 광양 제2LNG터미널 준공, 북미산 LNG 장기 도입이 더해지면서 밸류체인 전반의 연계 효과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사업의 성장세는 올해 2분기 실적에서도 확인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에너지 부문 영업이익은 22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6% 증가했다. 미얀마 가스전은 환율 상승과 투자비 회수 효과로 견조한 실적을 거뒀으며 발전·터미널 사업도 인프라 마진 확대와 고객사 계약 조건 개선 등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됐다.

호주 세넥스에너지의 증산 효과도 실적 증가에 힘을 보탤다. 생산능력을 인수 당시의 약 3배로 늘린 증산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가스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5% 늘어난 332억원을 기록했다. 신규 생산정 확보와 지난 5월 수처리시설 완공에 따라 천연가스 생산량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얀마 가스전에서는 기존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4단계 개발사

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 공정률은 44%다. 생산정 시추와 해저 생산설비 제작 등을 거쳐 계획대로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LNG 저장과 공급을 담당하는 광양 제2 LNG터미널도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2분기 말 기준 공정률은 96%다. 현재 광양 LNG터미널은 저장탱크 6기에 총 93만kl의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2터미널의 20만kl급 저장탱크 2기가 추가되면 전체 저장용량은 133만kl로 늘어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확충된 저장시설을 활용해 LNG 트레이딩과 발전용 공급, 선박용 LNG 병커링 등 터미널 연계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북미산 LNG의 장기 조달도 시작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국 세니에르 에너지와 연간 40만톤의 LNG를 20년간 공급받는 장기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4분기에는 LNG 전용선을 통해 첫 계약 물량을 국내로 들여올 예정이다.

발전사업은 인천 LNG복합발전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곳에서 총 3412메가와트(MW) 규모의 발전설비를 가동하고 있다. 세넥스에너지 증산과 북미산 LNG 장기 도입, 광양 제2LNG터미널 준공을 추진하며 가스 생산부터 조달·운송, 저장, 발전까지 아우르는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업스트림 자산과 장기 LNG 조달, 전용선, 터미널, 발전을 연결하는 LNG 토털 밸류체인의 실질적인 확장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metro



3일 더 플라자에서 열린 한화머시너리엔서비스홀딩스(한화M&S) 출범 기념식. 왼쪽부터 이주형·윤재원·이태식·조민호 독립이사, 김동선 미래전략총괄 사장·김형조 대표·박병삼 부사장·조준형 전무·이재원 상무.

/한화M&S

## 한화M&S 출범… 김동선 ‘독자경영’ 첫 발

오너 3세 사업별 역할분담 마무리 수순  
김 사장, 신사업 발굴 등 미래전략 주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사장이 이끄는 테크·라이프 부문 지주사 한화머시너리엔서비스홀딩스(한화M&S)가 공식 출범했다. 한화그룹 오너 3세의 사업별 역할 분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독자적인 사업 기반을 갖춘 김 사장의 경영 능력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화M&S는 3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출범 기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범은 지난 1일 한화그룹 지주사인 ㈜한화에서 테크·라이프 부문을 인적분할한 데 따른 것이다. 신설 지주사에는 테크 부문의 한화비전·한화세미텍·한화모넨텀·한화로보틱스와 라이프 부문의 한화갤러리아·한화호텔앤드리조트·아워홈 등이 편입됐다.

해외법인과 손자회사를 포함한 소속사는 총 57곳이다. 2025년 말 연결 기준 매출은 약 6조원, 자산은 11조3000억원 규모다. 한화비전과 한화갤러리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다.

한화M&S 출범으로 한화그룹 오너 3

세 3형제의 사업별 역할 구분도 한층 뚜렷해졌다. 장남인 김동관 수석부회장은 방산·조선·해양·에너지·우주항공을, 차남인 김동원 부회장은 금융 부문을 맡고 있다. 삼남인 김동선 사장은 기계·로봇·반도체 장비·유통·호텔·식음료 사업을 아우르는 한화M&S의 미래 전략을 담당한다.

김 사장은 한화M&S 미래전략총괄로 자리를 옮겨 계열사별 중장기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신사업 발굴과 계열사 간 협업을 주도할 예정이다. 서로 다른 사업군의 경쟁력을 높이고 테크와 라이프 부문을 잇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 사장은 그동안 테크·라이프 부문 계열사의 미래비전총괄을 맡아 반도체 장비와 로봇, 식음료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다. 한화세미텍의 고대역폭메모리(HBM)용 열압착(TC) 본더 대량 수주와 중동·인도 등 신흥시장 진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일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했다.

한화M&S는 계열사별 사업 특성과 시장 환경을 반영한 경영 전략을 수립해 전문성을 높이고 부문 안팎의 협업을 확대

할 방침이다. 복합기업 구조에 따른 기업 가치 저평가를 해소하고 테크·라이프 부문의 투자와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화M&S 관계자는 “복합기업 디스카운트 해소를 테크·라이프 부문에 대한 투자와 사업 확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부문이 그룹의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초대 대표이사에는 김형조 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가 선임됐다. 김 대표는 1994년 한화그룹에 입사한 이후 사업 전략 수립과 사업장 운영 등에서 경험을 쌓았으며 2021년부터 4년간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대표를 맡았다.

김형조 대표는 “전문성을 극대화한 새로운 경영 체계를 구축해 강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며 “한화M&S의 성장이 국가와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는 지난달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인적분할계획서를 가결했다. 한화M&S는 오는 2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주담대 늘어날 것”

》1면 ‘5대 은행, 주담대…’서 계속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잔금대출에 한해 일부 완화된 데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입주도 본격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9272가구로, 올해 상반기 월평균 입주 물량인 1만6082가구를 웃돈다.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잔금대출 실행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는 앞서 늘어난 주택 거래가 잔금대출 실행으로 이어진 영향이 크다”며 “8월부터 입주 물량이 확대되고 잔금대출에 대한 총량 관리도 일부 완화된 만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네스트장은 증시 급락 과정에서 저가매수를 위한 대기 자금 수요가 유입되며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신용대출 수요도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시장, 韓 증시 장밋빛 전망… “진입 기회”

》1면 ‘역대급 급등…’서 계속

극단적인 한국 증시의 변동성은 외국인들마저도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한 외국계 투자은행 임원은 “외국인들도 선불리 한국 증시의 변동성에 뛰어들지 못한 채 관망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빚투(빚을 내 투자)’를 했다가 갚지 못한 결과 발생한 강제 청산과 반대매매도 변동성을 키웠다. 지난달 31일 폭등했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9%, 8% 급락했다.

시장에서 보는 한국 증시의 미래는 여전히 장밋빛이다.

신디 박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등의 수급 요인들이 기업 펀더멘털이 견조한 상황에서도 시장 변동성을 증폭시켰다”며 “시장의 ‘디레버리징(차입 축소)’ 과정이 진행되고 외국인 매도 압력이 완화된에 따라 한국 증시의 다음 단계 재평가(re-rating)는 기업의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증시가 최근의 레버리지 청산 덕에 가격 부담이 낮아지며 투자자들에게 인공지능(AI) 트레이딩 및 반도체 슈퍼사이클 테마주에 진입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국내생산 세제지원 신설… 첨단산업·지역경제 등 뒷받침

세수 효과 2031년까지 3조4000억  
취약 품목 직접 생산·판매 때 공제  
지역별 계수 적용해 지방 우대 강화  
인구감소지역 벤처 출자 공제를 상향  
1인가구 근로장려금 180만원 지급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과세 외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과 민생·지방 지원에 초점을 뒀다. 중기·벤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또 지방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

우선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측면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한다.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하는 특례 조처다. 재경부는, 이를 통해 녹색전환 및 경제안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크게 6대 부문을 지원한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인공지능)로봇부품이다.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정기 시행령 개정 시(내년 2월) 반영한다.

다만 요건이 있다. 내국인이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고 동시에 판매도 해야 한다. 공제액은 적격품목 생산량에 기준공제액을 곱해 산정한다. 여기에 지방우대까지 지원한다. 기준공제액에 생산지역별 계



부산항에 수출용 선적을 기다리는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뉴시스

수를 곱한다. 계수는 수도권 1.0을 기준으로 비수도권 광역시가 1.1, 기타 비수도권이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이 1.5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중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한다. 수소 분야에 대해,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R&D) 및 투자액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석유화학산업 사업 재편을 위해 법인세를 지원하고, 연안해운 우수 회주를 대상으로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세제 지원 적용 시 투자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을 현행 설립 후 7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또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할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상향(5%→7%)한다. 아울러 벤처투자회사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도 상시화한다.

정부는 자본시장활성화를 위한 혜택도

추진한다. ‘생산적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해, 이자와배당 전액 이비과세 대상이다. 대상은 국내주식, 국내주식형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이다.

민생·지방에 대한 지원책도 두텁게 마련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1인가구는 현행 165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린다. 또 홀벌이와 맞벌이의 경우 각각 285만 원, 330만 원에서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상향한다.

신혼부부 지원도 강화한다. 경차 소유자 간 혼인신고로 경차 2대 소유 세대가 되더라도 1대분에 대해서는 유류세 환급을 허용한다.

아울러 지방 주도 성장 강화에도 각별히 신경쓰겠다는 입장이다. 생산지역별 계수에 더해, 지방 사업장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율과 감면기간을 우대한다. 청년의 경우, 지역과 무관하게 현행 5년간 90% 감면에서 비수도권 광역시는 6년 90%, 기타 비수도권은 7년 9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0년 90%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의 세수효과를 3조 4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2027년 7812억 원, 2028년 1조8893억 원, 2029년 4882억 원, 2030년 642억 원, 2031년 2201억 원 등이다.

특히 종부세가 3년간 2조1815억 원 늘어난 것으로 봤다. 내년 8227억 원, 후년 1조966억 원, 내후년 2622억 원이다.

정부는 이달 4일부터 20일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어 다음 달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종부세 ‘몇 채’보다 ‘얼마짜리’… 20억 이하 실거주 1주택 비과세

2028년 주택가액 기준 일원화  
과세기준·기본공제 14억 상향  
비거주 주택 기본공제 9억 축소  
다주택자, 거주 비중만큼 공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 체계에서 주택 수 기준을 없애고 보유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실제 거주하는 1주택자는 시가 약 20억원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공제는 줄여 실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차이가 커질 전망이다.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2주택과 3주택 이상으로 나뉜 세율 체계를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현행 제도는 같은 가액의 주택을 가져도 주택 수가 많으면 별도 세율을 적용받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내년에 1·2주택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중간 단계를 거쳐 2028년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가액 기준으로 완전히 바꿀 방침이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구간의 세율도 인상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과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

으로 높아진다. 시가로 환산하면 약 20억원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셈이다.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고 중산층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가격대별로는 시가 20억~30억원인 거주주 1주택자의 종부세가 줄고, 30억~40억원은 세액 변동이 크지 않도록 설계했다.

반면 공제와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시가 40억~50억원을 넘는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대신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현행 9억원 대신 4억원을 우선 공제받고, 나머지 5억원은 전체 주택가액에서 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만큼만 공제받는다. 거주 주택의 비중이 작을수록 공제액도 줄어드는 구조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세제 개편을 내년 1월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율과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세제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도 관심이 쏠린다. 주택 가액과 실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재편되면서 고가·비거주 주택의 매물이 늘어날지, 핵심지역의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합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팀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다주택자 증가 완화와 고령층의 지방 이주 수요 등이 맞물리며 내년 주택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서울 등 공급이 부족한 핵심지역은 매물 증가가 곧바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시가 20억원 안팎의 실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 확대 효과를 받을 수 있고, 장기간 거주하면 양도세 공제도 적용되는 만큼 핵심지역의 ‘뚝뚝한 한 채’ 선호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와 단기 매매 수요는 위축돼 시장이 실수요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 가업상속공제 최대 1000억… ‘기술·노하우 기업’ 중심 재편

전문기술 보유 727개 업종 선별  
경영 1년당 공제액 20억원 적용  
제3자 승계도 매도·매수자 감면

정부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손질도 추진한다. ‘기업’ 승계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전반을 재설계하는 동시에 제3자 사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신설한다.

특히 ‘기업’의 정의를 기존과 달리하기로 했다. 기업을 ‘전문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한다.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기술, 영업비밀 및 유사기술 및 노하우로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제도 취지에 맞는 공제 대상 업종 727개를 선정한다. 예로, 백년소상공인·명문장수기업 등에 지정된 기업은 업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주요 제외 업종도 제시했다. 마트와 버스 및 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다.

공제 한도는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 원을 곱한 금액이다. 최대 공제 한도를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매도자·매수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매도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를 감면한다. 매수자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 10%를 감면한다.

과세 재설계도 추진한다. 취학 전 아동의 예체능 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세 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1.3%에서 1.2%로 축소한다.

포상금 제도도 개편한다. 탈세와 재산 은닉 등에 대한 신고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도 상향 조정한다.

또 해외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경남 함안의 한 대장간.

/뉴시스



# 데이터센터·원전 품고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 도약

29 귀뚜라미

Kiturami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라는 광고 카피로 유명한 귀뚜라미그룹이 보일러 회사에서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1962년 당시 ‘신생보일러공업사’로 시작해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가스보일러를 잇따라 선보이며 대한민국 난방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귀뚜라미가 냉방, 공조, 에너지 등으로 사업영역을 무한 확장하고 있다.

3일 귀뚜라미그룹에 따르면 회사는 2000년대 들어 세계적 추세인 종합 냉난방 에너지기업으로 변신을 준비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귀뚜라미 범양냉방(2006년), 신성엔지니어링(2008년), 센추리(2009년), 강남도시가스(현 귀뚜라미에너지) 등 국내 냉동·공조 업체, 에너지 공급사를 잇따라 인수하며 냉방기, 냉동기, 공조기, 원전용 냉동공조기,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탄탄한 기술력과 사업력을 확보하면서다.

국내 보일러 시장은 보급기(1980년대)→성장기(1990년대)→성숙기(2000년대)를 거쳐 2020년대 들어선 침체기를 맞고 있다.

이런 시장 여건에도 불구하고 귀뚜라미는 지난해 기준 그룹 전체 매출이 1조 6100억원까지 성장했다. 보일러 산업 전체 속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해 2000년 이후 5배 이상 매출이 늘었다.

이는 보일러를 중심으로 한 난방 사업을 제외한 비보일러 사업 매출이 전체의 70% 가량에 이를 정도로 각 사업 분야에서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확보했기에 가능했다.

## ◆주력 난방사업에 구둑경제 접목

우선 난방 사업 분야의 귀뚜라미는 한국 산업의 브랜드 파워 28년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독보적인 브랜드 인지도를 보유하며 우리나라 보일러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했다. 거꾸로 NEW 콘텐츠 P10, 거꾸로 ECO 콘텐츠 L20 등 친환경 콘텐츠 보일러를 중심으로 가스보일러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 영업 강화와 현지 특화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해 해외 매출도 꾸준히 늘고 있다.

보일러 역시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생활환경가전처럼 구둑경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보일러는 평균 100만원 안팎의 교체 비용이 필요한 제품이다. 교체 시점이 다가와도 비용 부담 때문에 사용 기간을 늘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귀뚜라미는 이러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2025년에 가정용 보일러 렌탈 서비스 ‘따숨케어’를 선보였다.

기존엔 보일러를 판매하고 A/S를 제공하는 구조였다면 렌탈 서비스는 설치 이후 장기간 유지관리까지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서비스에는 ▲최대 8년 무상 A/S ▲연 1회 정기 성능 점검 ▲24시간 이내 고장 대응 등이 포함된 소비자가 별도로 관리 일정을 챙기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렌탈 모델 역시 소비자의 주거 환경과



① 귀뚜라미그룹 충남 아산사업장 전경. ② 귀뚜라미 냉난방 기술연구소 전경. ③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창업주 겸 회장(앞줄 왼쪽 7번째)이 지난 5월 전남 해남군 모범 학생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귀뚜라미

보일러 산업 정체 속 사업 다각화  
2000년 이후 매출 5배 이상 늘어

가정용 보일러 렌탈 ‘따숨케어’  
판매 경쟁보다 서비스 경쟁 공략

AI 시대 속 냉각탑 분야 행보 기대  
드라이룸·HVAC 등 개발·수출  
원전·특수선 냉동공조기기 성과도

41년간 사회환원 금액 누적 610억  
올해 상반기엔 장학금 13억 지원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상금 후원도

설치 조건에 맞춰 고압형과 일반형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보일러에 렌탈 비즈니스를 접목한 것은 귀뚜라미가 구축해 놓은 전국 약 300개 대리점과 서비스 네트워크가 있기에 가능했다. 제품 설치와 유지관리, A/S 등은 기존 귀뚜라미 서비스 인프라를 기반으로 운영하고 렌탈 계약과 운영은 현대렌탈케어와 협업하는 방식이다.

회사 관계자는 “렌탈 시장이 생활가전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소비자는 제품 자체보다 관리 서비스를 함께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보일러 역시 앞으로는 판매 경쟁보다 서비스 경쟁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데이터센터, 원전 등 미래 분야 시너지 모색

귀뚜라미범양냉방, 신성엔지니어링, 센추리 등 냉방 계열사는 귀뚜라미그룹 전체 매출의 40% 가량을 담당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냉각탑 분야 국내 1위인 귀뚜라미범양냉방은 인공지능(AI) 시장 확대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향후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반도체, 클린룸에 사용하는 산업용 냉각탑, 외조기 등 산업용 공조기의 설비 공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산공법을 개발해 맞춤형 냉동·공조 설비의 개발·시공을 확대하고 있고 지속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나라 냉동·공조 산업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회사는 향후 데이터센터 뿐만 아니라 친환경 냉각탑, 발전소용 냉각설비, 신재생 냉각 솔루션 등 신규 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수주 확대가 예상된다. 또 바이오산업 성장에 따른 관련 프로젝트 증가와 L

NG·풍력발전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기회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

신성엔지니어링은 2차전지용 드라이룸 시스템 국내 1위 기업이다. 드라이룸(Dry Room) 시스템, 공동주택용 지열시스템, 바닥공조 시스템 등 최신형 시스템 공조화 기술과 함께 고효율 터보냉동기, 흡수식 히트펌프 등 국산 냉동·공조 제품 개발과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외 반도체, 배터리 제조 하이테크 산업시설에 냉난방공조(HVAC) 제품을 지속적으로 납품하고 있으며 국내 40메가와트(MW)급 데이터센터 쿨링시스템(Cooling System)을 수주하는 등 신사업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회사는 향후 2차전지 및 반도체 핵심 설비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에 대응해 냉각 시스템 등 관련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데이터센터 냉각 솔루션 사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센추리는 원자력발전소와 특수선(잠수함 등) 냉동공조기기 국내 1위 기업이다. 원전사업 관련 냉동공조기기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설계, 제작, 시험 및 검사 등의 노하우를 통해 탄탄한 기술과 인력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고 국내 원전 20기 이상의 건설 사업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해외 원전 신규 및 개보수 사업 분야 진출을 가속하고, 함정 및 잠수함 수요 증가에 따른 냉난방 공조 장치 수주를 지속해 업계 선도기업 위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원전 사업에선 SMR(소형 모듈형 원자로), MSR(용융염 원자로) 국책 과제를 통해 기반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 노후 원전 개보수 및 해외 원전 사업 수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조선 부문 역시 수출형 잠수함과 수상함 등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차세대 잠수함용 이산화탄소 제거장비 등 신기술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보일러 시장을 주도하는 우수 기업들이 오래전부터 냉난방 시스템 기업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귀뚜라미도 주력 계열사들의 기술력과 시너지를 바탕으로 난방, 냉방, 공조, 에너지가 하나의 기술로 통합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난방, 냉방, 공조, 에너지 등 주력 사업을 유기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보

일러 전문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41년간 누적 장학금 610억, 장학생 7만명 배출

귀뚜라미는 장학사업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그룹이 귀뚜라미문화재단, 귀뚜라미복지재단 등을 통해 지난 41년간 사회에 환원한 금액만 누적 610억원에 달한다. 귀뚜라미 장학금을 받은 인원은 총 7만명이 훌쩍 넘는다.

창업주 최진민 회장은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1985년에 사재를 출연, 귀뚜라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사회공헌활동의 기반을 마련했다. 공학 기술 발전과 교육 지원을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장학사업과 학술 연구 지원 사업도 지속해오고 있다.

귀뚜라미문화재단은 올 상반기에만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 1346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13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올해 1월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6월 10일 경북 칠곡군까지 24곳 지자체에서 상반기에 진행한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에 모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하며 인재 육성 철학을 몸소 보여줬다.

‘한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한국공학한림원 대상은 귀뚜라미그룹이 지난 1997년 제1회 시상부터 상금 전액을 후원해오고 있다. 후원 30년 차를 맞은 올해부터는 상금 규모를 총 6억원으로 늘렸으며, 대상 수상자 상금 4억원을 비롯해 ‘젊은공학인상’과 ‘뉴프런티어상’ 수상자에게도 각각 1억원을 지원해 공학 기술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미래 인재 육성과 함께 지역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룹은 지난 2003년 사회복지 분야를 전담하는 귀뚜라미복지재단을 설립하고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사회 복지 증진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귀뚜라미그룹 관계자는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얻은 성과를 지역 사회 구성원과 나누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복지, 학술분야의 폭넓은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KB금융그룹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요즘 환전?

# KB스타뱅킹 공항에서 바로 터치 캐치

환전하는 순간부터 여행은 시작되니까  
환전부터 간편하게 KB환전서비스

## 스타프렌즈 러기지택 증정 이벤트

기간 2026.7.20.(월) — 2026.8.31.(월) \*경품 지급은 외화 현찰 수령일 기준

내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고객 대상 3,000명 선착순 경품 랜덤 제공

- 01 KB스타(인터넷)뱅킹에서 이벤트 대상 통화를  
미화 100불 상당액 이상 전액 원화에서 외화로 환전  
\* 이벤트 대상 통화 : THB, VND, CNY, TWD, PHP
- 02 수령 방법 선택 시 "인천공항에서 받기" 선택
- 03 인천국제공항 지점 및 환전소에서 외화를 수령하며  
"이벤트 알림톡" 제시

경품 스타프렌즈 여행용 러기지택 랜덤 증정(3,000개)  
\* 이벤트 기간 중 고객별 경품 1회 지급 (중복 불가) / 경품 소진 시 조기 종료



이벤트 참여하기

최대 90% 환율우대

24시간 환전 신청

인천국제공항 어디서나 수령  
2개 영업점, 7개 환전소(면세구역 제외), 7개 ATM

※경품은 고객님께서 선택할 수 없으며 준비된 경품 중 하나가 랜덤으로 지급됩니다. ※완료된 환전 거래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연세구역(출국심사 후, 입국심사 전) 및 환승 고객의 경우 비대면 채널에서 환전하신 외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환전을 신청한 본인 고객만 찾을 수 있습니다(대리인 수령 불가). ※환전 신청한 금액은 원화로 직접 되팔기 할 수 있으며, 거래 시점의 환율 파실 때 환율(환전 신청 시 적용한 환율 우대율 적용)이 적용됩니다. ※환전 후 미수령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 외화는 예금자보호법으로 보호되지만 이자 지급의 대상은 아닙니다. ※미달러(USD)를 제외한 기타 통화를 외화 입출금 계좌에 입금 후 영업점에 방문하여 외화를 출금할 경우 외화현금보관수수료(외화현찰수수료)가 발생합니다. (JPY, EUR 1.5%, 그 외 기타통화 3%) ※비대면 환전 신청은 24시간(토, 일, 공휴일 포함) 가능하나, 온라인 영업일자 전환시간(매일 00:00~00:05) 및 매월 셋째주 일요일(00:00~07:00)은 시스템 조정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광고물은 이벤트 관련 홍보물이며 서비스 이용 전자세한 사항에 대해 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융상품(서비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본 은행의 여타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526호(2026.07.29), 유효기간 2026.07.29.~2026.08.31.까지

KB 국민은행



# ‘AI·남미’ 성과 안고 돌아온李 대통령… 지지율·증시 시험대

기업 9500억달러 투자 협력 등 결실  
국정수행 긍정평가 3주 연속 하락  
오늘부터 부처 업무보고 재개

이재명 대통령이 7박11일간의 미국·남미 3개국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했다. 부동산, 증시 등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귀국 당일인 이날 관련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이 대통령 내외와 참모진을 태운 공군 1호기(대통령 전용기)는 이날 오전 11시 43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울공항에서 출국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브라질 브라질리아·상파울루, 칠레 산티아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진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인공지능(AI) 서밋’에 참석해 한국을 글로벌 AI 공급망 핵심 국가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와 협력 비전을 담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했고, 한미 글로벌 빅테크 기업 9500억달러 투자 협력을 이뤄냈다. 또 남미에서는 핵심 광물·에너지 협력



미국·남미·독일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3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을 확대하며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했다. 아울러 2억8000만 규모 시장인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를 주도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을 연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귀국한 이 대통령이 마주한 국내 상황은 녹록지 않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진행해 이날 발표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5.9%였다. 이는 전주 대비

0.4%포인트(p) 떨어진 수치로,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부정평가는 1.0%p 오른 50.5%로 같은 조사상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는 부동산과 증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전당대회 과정에서의 여당 내홍 심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이 대통령의 미국·중남미 순방 성과가 지지율 반등을 이끌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이 대통령은 귀국 당일 오

후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곧 발표될 부동산 정책과 최근 변동성이 커진 주식시장 상황 등 국내 현안이 주요 의제였다.

이 대통령이 순방 중이던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코스피 하락률은 34% 수준으로, 1990년 이후 역대 1위에 해당한다. 이에 정부는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 이날 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대책도 핵심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직전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후속 토론회를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에 보유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또 이 대통령은 4일부터 이틀간 부처 업무보고도 진행한다. 첫날인 4일에는 오후 2시~3시40분까지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기후에너지부(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오후 4시20분부터 6시까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고한다.

5일에는 오전 10시~11시40분에 외교부(재외동포청), 통일부,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국가보훈부가, 오후 2시~3시40분까지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가 보고에 나선다. 마지막 순서인 오후 4시20분부터 6시까지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인사혁신처, 법무부(검찰청), 법제처, 국무조정실의 보고가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 지난달 15일부터 이틀간 재정경제부 등으로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번 4~5일 일정은 당시 마치지 못한 나머지 부·처·청·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다. 이번에도 생중계로 진행되며, 국민참여단이 현장에서 직접 질문도 할 예정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 100%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2일 울산 울주군 삼남면 울산전지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왼쪽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대표 후보. /뉴시스

## 정청래 앞섰지만 김민석 추격·선호투표 변수

민주당 전대 순회경선서 각 1승  
호남·수도권 표심 ‘승부처’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첫 주말 순회경선이 과반 득표자 없이 정청래·김민석(기호순) 당 대표 후보가 각각 1승씩 주고받은 채 끝났다. 만약 어느 한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 않은 채 선거가 흘러갈 경우, 선호투표제가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된다. 이에 따라 당원들이 많은 호남권과 수도권 표심에 눈길이 쏠린다.

3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결과를 종합하면, 정 후보는 충청·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누적 투표수 12만1981표 중 5만5518표(45.51%)를, 김 후보는 5만4307표(44.52%)를 득표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99%포인트(p)에 불과하다. 송영길 후보는 1만2156표(9.97%)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기준으로는 일단 정청래 후보가 1위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과반을 달성하지 못했고, 김민석 후보와의 격차는 1%p 이내다. 아울러 전날(2일) 부울경 지역에선 정 후보가, 지난 1일 충청권에선 김 후보가 이긴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과반 득표를 얻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에는 당대표를 선출할 때 과반을 얻어야 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선호투표 또는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선호투표제를 실시한다. 유권자가 후보 3명을 선호순으로 고른다. 그리고 3위 후보가 떨어지면 3위 후보를 찍은 유권자가 2순위로 찍은 후보에게 표를 재배분한다.

이 때문에 선호투표제를 실시할 경우 김 후보가 유리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와 송 후보는 정 후보를 겨냥해 사실상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김 후보를 1순위로 고르는 유권자가 2순위로 송 후보를 고르고, 송 후보를 고르는 유권자는 2순위로 김 후보를 고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당시 친청(친정청래)계에서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온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결국 당원의 대다수가 몰려 있는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은 이번 전당대회 투표권을 보유한 관리당원이 30% 이상 밀집돼 있고, 수도권에도 대략 40% 정도가 있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던져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성향이 강한 편이다. /서예진 기자

## 與 “국민 위한 사법개혁” vs 野 “법치 붕괴”

###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국힘,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촉구  
민주, 형소법 개정 국민보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두고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까지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피해자 관리구제 강화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당채 분수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을 향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 사항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자 역사의 명령”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도 더 거세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니, 대한민국이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라며 “78년간 유지해 온 사법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렸다”고 덧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인) 60%가 넘는 국민이 반대하는 악법을 단독으로, 힘으로 밀어붙였다”며 “이럴 때 대통령의 임무는 다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대로 된 법안을 보내라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권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 본인이 한 말”이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대통령답게 처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이 대통령”이라며 “법안(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국민과 싸울 것이고, 그것이 곧 이재명 정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형소법 개정은 검찰 개혁이 끝이 아닌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 자리엔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정에 정책위의장,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서영교 위원장과 김승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7대 범죄 전건송치’ 등 보완책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직무대행은 “조직과 인력·예산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사건 이관과 기관 간 협력 체계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안정적으로 출범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 일상에

뿌리내릴 때까지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한정에 정책위의장은 “이번 형소법 개정은 수사는 독립적으로 기소는 책임 있게, 그리고 각 기관이 견제하면서도 협력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검사법 체계의 시작”이라며 “가보지 않은 길이다. 가보지 않은 길이 문제가 없도록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형소법이다. 기준과 달리 피해자들의 권리가 들어있다”며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 수사는 사법 경찰관 즉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수청은 한국판 미국 연방수사국(FBI)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중수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해놨다”고 덧붙였다.

현재 뜨거운 감자인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선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다. 검사가 긴급할 때 (보완수사)를 3일 내로 해주세요” 하면 3일 내로 실행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증거보전에 대해서는 ‘범죄현장을 압수 수색하는 경우 등에는 바다를 달고 한 곳·한 사건·한 증거도 놓치지 않게 영상 녹화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키스)에 시간별로 넣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게 해놨다’고 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





하나의 별은  
혼자 반짝이지만  
별들이 모이면  
방향이 된다  
  
함은 길이 된다



AI 시대 전기화·에너지를 위해 SK이노베이션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 방한 외국인, 의료현장에서 카드 꺼냈다… 이용금액 54% ↑

비씨카드, 외국인 소비 트렌드 분석  
상반기 의료업종 이용금액 98% ↑  
성형 벗어나 피부·미용 중심 결재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의료소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성형 중심이던 의료관광 소비 트렌드가 피부·미용, 약국 이용 등을 중심으로 재편된 것도 특징이다.

3월 비씨카드가 발간한 방한 외국인 소비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의료 업종 이용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98% 증가했다. 숙박, 보건·위생, 의류 등 타 관광 업종 중 가장 높은 성장세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의료 업종 시장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씨카드가 약 330만 외국인 이용카드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의 카드 이용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53.6% 증가했다. 결제건수는 40.3% 늘었다.

특히, 중국 관광객 회복이 방한 외국인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지나가고 있다.

/뉴스시스

소비 증가율을 견인했다.

중국 관광객의 이용 카드 수는 56.6% 증가했다. 싱가포르(+46.8%), 대만(+44.3%), 일본(+40.1%), 미국(+30.6%)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카드 이용금액은 82.7% 급증했다.

의료 소비는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의료업종 전체 이용 금액 중 상반기 서울 의료 소비액은 2051억원으로 전년 대비 9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광역시 27.5%, 부산광역시 27.4%, 경기도 21.7%, 제주특별자치도 13.1%, 기타 지

역 3.0% 올랐다.

의료소비의 무게중심도 성형에서 피부·미용으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 전체 진료과목 비중을 살펴보면 피부 미용 소비 비중은 지난해 61.7%에서 67.5%로 확대됐다. 반면, 성형외과 소비 비중은 30.1%에서 21.3%로 감소했다.

비씨카드 측은 보고서를 통해 “의료관광이 고액 중심에서 일반 관광객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다양한 의료 서비스 증가로 소비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약국과 한방의료 소비 비중도 증가 추세다. 약국은 2.0%, 한방의료는 0.6%로 전년 대비 각각 1.7%포인트(p), 0.2%p 비중이 확대됐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피부 미용 분야에서는 일본·미국 고객 비중이 확대되면서 다국적화가 진행됐다. 약국 분야에서는 대만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동시에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의 매출 비중이 올랐다.

의료 관광의 방문 규모와 소비 수준에서는 국가별 차이를 보였다. 일본은 다국가 대비 방문 건수가 가장 많았지만 건당 결제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아 대중형 의료관광 시장의 특징을 보였다.

반면, 미국은 국내 의료소비 매출액 기준 1위 국가로, 방문 규모와 건당 결제금액이 모두 높아 핵심 고부가가치 시장을 형성했다. 중국과 홍콩은 방문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건당 결제금액이 높아 고부가 의료관광 시장으로 평가됐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지난달 30일 수원 대우건설 인재경영원에서 김보현 사장이 신입사원과 대화하고 있다.

/대우건설

##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신입사원 소통 간담회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이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들과 만나 회사의 비전과 조직 문화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대우건설은 김 사장이 지난달 30일 경기 수원시 인재경영원에서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과 소통 간담회를 열고, 신입사원들이 준비한 행사에 참석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사장은 “신입사원은 대우건설의 미래이자 재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건설업의 기본인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스마트건설 시대에 선제 대응해 대우건설이 스마트건설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간담회 이후에는 신입사원들이 직접 기획한 ‘한마음의 장’ 행사가 열렸다. 팀별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등 프로그램에 경영진과 신입사원이 함께 참여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성채리 수습기자

## 유가 하락에도 물가경계 지속… 금리 경로 ‘안갯속’

한은, 에너지가격 간접효과 우려  
신현송 총재 “모든 가능성 열어둘 것”

국제유가가 3일 5% 안팎 급락했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경계는 곧바로 풀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유가 하락은 앞으로의 직접적인 물가 압력을 낮추지만, 2월 말부터 기업 비용에 스며든 고유가 충격은 상품과 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는 ‘간접효과’가 있어서다.

신현송 한은 총재(사진)는 에너지가격 충격의 간접효과가 일반적으로 6개월 뒤 가장 크게 나타나고 1년 이상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중동발 유가 충격이 본격화한 2월28일부터 오는 27일 금융통화위원회까지는 정확히 180일이다.

◆ 호르무즈 함의 기대감

이날 아시아 거래에서 10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3.44달러로 5.1% 떨어졌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79.77달러로 5.8% 하락하며 80달러 아래로 내려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보류하고 핵 협상과 호르무즈해협 재개방을 위한 신속한 합



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중동발 위험 프리미엄이 줄어든 영향이다. 석유수출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 협의체인 OPEC+가 9월부터 생산량을 하루 18만 8000배럴 늘리기로 한 결정도 하방 압력을 보였다.

OPEC+ 핵심 7개국의 이번 조정으로 지난 2023년 결정한 하루 165만배럴 규모의 자발적 감산 복원은 9월 마무리된다. 다만 걸프지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의 수출 차질로 앞선 증산분 상당 부분이 실제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 증산물량이 당장 시장에 풀리는 것은 아니지만 원유시장은 향후 공급과 지정학적 위험 변화를 선반영한다.

앞서 발생한 비용 충격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브렌트유와 WTI는 중동 긴장이 재점화한 지난달 각각 20% 넘게 올랐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7월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44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1% 증가했다.

6월 수입물가도 전월보다는 낮아졌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0% 넘게 높은 수준이다.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원재료비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불가피하다.

◆ 근원·생활물가…8월 금리 인상 가른다

한은이 주목하는 것도 국제유가의 하루 움직임보다 물가의 파급경로다. 에너지가격 상승은 휘발유와 항공료 등에 곧바로 반영되는 직접효과를 거쳐 운송비·원재료비·전기료 등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 가격으로 번지는 간접효과를 낸다. 이후 임금과 가격 설정, 기대인플레이션까지 바뀌면 2차 파급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신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6개월이 최고 영향을 미치고 한 1년 이상 간다”고 말했다. 유가가 이날 급락했더라도 이미 누적된 비용 상승의 간접효과는 진행 중이라는 판단이다.

첫 시험대는 7월 소비자물가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았고, 근원물가는 2.5%, 생활물가는 3%대 중반을 기록했다.

7월에는 유가 하락과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영향으로 전체 상승률이 6월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경기 회복세도 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변수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6%,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3.6%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로 소득과 소비가 개선되면 기업이 누적된 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쉬워진다. 유가 하락만으로 수요 측 물가 압력까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8월 금통위의 선택은 유가의 절대 수준보다 하락세의 지속 여부와 근원·생활물가에 달렸다. 한은은 일시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제외한 근원물가와 가계의 체감물가 및 기대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생활물가를 함께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신 총재는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며 “앞으로 나올 여러 지표에 무게를 두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전국에서 2만8000가구 쏟아진다… 수도권 80% 차지

직방 분양물량 전년동기 대비 58% ↑

8월 전국에서 아파트 2만8000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전체 물량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33개 단지, 2만8015가구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달 1만7759가구보다 58% 증가한 수치다.

일반분양 물량은 1만8861가구로 전년보다 43% 늘어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만2492가구가 공급돼 전국 예정 물량의 약 80%를 차지한다. 경기도가 14개 단지, 1만626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7개 단지, 6770가구에 이어 인천 3개 단지, 5096가구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대에 이치클래스'에 총 5002가구가 공급된다. 이밖에 영등포구 신길동 '썬미클라비온' 812가구, 중구 중림동 '중정로얄자이르네' 299가구, 중랑구 중화동 '중화역라온프라이빗센트' 250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에서는 부천시 소사구 '두산위브더제니스부천'에 2008가구가 공급된다. 평택시 고덕동에 '엘리프고덕센트럴하이'와 '평택고덕국제신도시 A48블록 에미지' 등 3개 단지, 총 2264가구가 분양된다.

지방은 6개 지역, 9개 단지에서 총 5523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을 위한 실수요자 지원책을 검토하면서 하

반기 청약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며 “최근 대출 규제와 한도 축소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만큼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나오면 청약 수요를 일부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 7월은 예정 물량 2만9671가구 가운데 1만8227가구만 분양돼 공급 실적이 61%에 그쳤다. 지난 6월 분양 실적을 83%보다 2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통상 7~8월은 분양 비수기로 꼽힌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리면서 시장 상황과 사업 여건에 따라 8월 예정 물량 역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성채리 수습기자 cr56@

## 우리은행 ‘우리의 소원 예·적금’ 특판

우리은행이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과 8·15 광복절을 기념해 고객 참여형 금융상품인 ‘우리의 소원 정기예금·적금’을 특판한다.

이번 상품은 유네스코가 2026년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구 선생의 삶과 정신이 조명받는 뜻깊은 해를 맞아, ‘백범일지’에 담긴 ‘나의 소원’과 김구 선생이 꿈꾼 ‘아름다운 나라’의 가치를 고객들과 함께 되새기고자 기획됐다.

‘우리의 소원 정기예금’은 6개월과 12개월 만기 상품으로 구성된다. 기본금리는 6개월 연 3.10%, 12개월 연 3.40%이며, ‘우리의 소원 남기기’ 참여 시 연 0.20%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우대금리 적용 시 최고금리는 6개월 연 3.30%, 12개월 연 3.60%다. 가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며, 총 1조원 한도로 오는 이달 말까지 선착순 판매한다.

‘우리의 소원 적금’도 6개월과 12개월 만기로 특판한다. 기본금리는 6개월 연 4.29%, 12개월 연 3.00%다. ‘우리의 소원 남기기’ 참여 시 연 2.00%p, 직전 6개월간 우리은행 예·적금 미보유 조건 충족 시 연 2.0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모든 우대 조건을 충족하면 6개월 상품은 최고 연 8.29%, 12개월 상품은 최고 연 7.00%의 금리를 제공한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KGM, 中 수출 1위 체리차와 전략동맹… 7500만弗 투자 유치

중형 SUV 공동개발 속도 높여  
두 번째 신차 프로젝트도 추진  
자율주행·반도체로 협력 확장  
해외 생산·판매망 공동 활용  
국내 전기차 출시 가능성 주목

KG모빌리티(KGM)가 중국 승용차 수출 1위 기업인 체리자동차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7500만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양사는 기존 플랫폼·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공동개발 협력을 넘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로봇, 반도체 등 미래 신사업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할 전망이다.

KGM은 체리차와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24년 플랫폼 라이선스 계약, 2025년 중·대형 SUV 공동 개발에 이은 후속 조치다. 양사는 KGM의 상품기획, 디자인, 차량 개발 노하우와 체리자동차의



8월 2일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KGM-체리자동차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투자 계약 체결식에서 KGM 박재선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GM

친환경 파워트레인 및 글로벌 플랫폼 기술을 결합해 신차 개발에 속도를 낸다. 첫 공동개발 성과인 프로젝트 'SE-10'은 렉스턴의 헤리티지를 잇는 중형 SUV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2.0ℓ 기술린 모델로 구성돼 2027년 초 출시될 예정이다. 양사는 프로젝트 'SE10'에 이어 두 번째 공

동개발 프로젝트 추진에도 합의했다.

다양한 지역의 법규와 안전기준, 고객 요구사항을 상품기획 단계부터 반영해 한국과 중국,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주요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전략차종을 개발할 방침이다. 양사는 구체적인 차종과 사양, 생산 및 판매지역, 역할 분담 등을 단

계적으로 합의해 글로벌 상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자동차 이외 영역인 로봇과 반도체 사업에서도 공동 연구·실증 및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는 공동투자와 개발 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또 양사는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해외 생산 및 사업 거점에 대한 공동 투자도 협의하기로 했다. 글로벌 생산시설과 공급망, 판매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상호 활용하고, 사업성이 확인된 해외 전략시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협력 모델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최고경영층이 참여하는 분야별 TF를 구성해 사업 추진방안과 역할 분담을 구체화하고, 양사 최고경영진이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투자를 통해 체

리차가 국내 공장 위탁생산을 비롯해 한국 시장 진출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의견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중국 지리자동차는 2022년 르노코리아의 지분 34%를 인수한 뒤 전기차 계열사인 폴스타의 폴스타4를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국내 판매와 해외 수출을 병행하고 있다.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품질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도 있다.

박재선 KGM 회장은 "KGM 70년 기술노하우와 체리차 친환경차 파워트레인 기술 협력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GM과 협력 확대에 따라 체리차의 국내 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리차 관계자는 "체리차는 다양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내 소비자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 (전기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LG전자, 동남아 상업용 세탁시장 넓힌다

태국 매출 2배·필리핀 1.5배  
베트남엔 체험형 매장 운영

LG전자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상업용 세탁기전 사업을 확대하며 글로벌 기업 간 거래(B2B)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북미와 유럽에서 확보한 사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태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 시장에서도 공급망을 넓히며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LG전자는 최근 태국 2위 빨래방 프랜차이즈 기업 '트렌디 위시'가 운영하는 630개 매장에 상업용 세탁기와 건조기 공급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문을 여는 400여 개 매장에도 제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트렌디 위시는 제품의 내구성과 에너지



베트남 하노이에 문을 연 '비 렌드리'에서 고객이 LG전자 상업용 세탁기를 이용하는 모습. /LG전자

효율은 물론, 여러 매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 솔루션을 높이 평가해 LG전자의 상업용 세탁 솔루션을 선택했다.

LG전자는 태국뿐 아니라 필리핀에서도 'ELS', '빅 위시', '익스프레스 클린' 등 주요 상업용 세탁기전 유통 채널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현지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고온·다습한 기후와 빠른 도시화로 상업용 세탁기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시장이다. 1인가구와 임대주택 거주자가 많고 관광객과 장기 체류 인구가 밀집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빨래방도 빠르게 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포천비즈니스인사이드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상업용(상업용) 세탁장비 시장은 지난해 약 13억달러 규모에서 올해 13억9000만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위생 기준 강화와 호텔·숙박시설, 셀프 빨래방 수요 확대가 시장 성장을 견인한다는 분석이다.

LG전자는 축적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전역으로 사업 지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현지 파트너사 'WW베트남'과 함께 스마트 세탁 매장 '비 렌드리'를 열었다.

비 렌드리는 일반 고객에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세탁 사업 진출을 검토하는 파트너와 투자자가 LG전자의 제품과 매장 관리 솔루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레퍼런스 매장으로 활용된다.

주요 고객사와 유통 채널이 늘어나면서 동남아시아 사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LG전자의 지난해 동남아시아 상업용 세탁기전 매출은 전년 대비 약 60%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태국 매출이 2배 이상, 필리핀 매출이 1.5배 이상 늘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김동관, 한화솔루션 유상증자 참여

신주 2만3153주 추가 취득  
태양광 투자·재무개선 동참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이 한화솔루션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2만3153주를 취득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금 조달에 동참하며 책임경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솔루션은 김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31일 구주주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2만3153주를 주당 2만2100원에 취득했다고 3일 공시했다. 이번 취득으로 김 수석부회장의 보유 주식은 8만1400주에서 10만4553주로 증가했다. 유상증자로 전체 발행주식 수가 1억7446만7885주에서 2억2746만7885주로 늘어나면서 지분율은 0.05%를 유지했다.

최대주주(한화) 역시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해 보유 주식이 8035만7854주로 증가했다. 다만 신주 발행에 따른 희석 효과로 지분율은 종전 36.15%에서 35.61%로 하락했다. 한화솔루션 주요 경영진도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남정은 케미칼 부문 대

표는 5651주를 추가로 취득해 보유 주식 이 2만8577주로 늘었다. 박승덕 큐셀 부문 대표는 7743주를 취득해 총 3만4892주를 보유하게 됐다. 지분율은 각각 0.01%와 0.02%다.

김 수석부회장과 주요 사업부문 대표들이 신주 인수에 참여한 것은 한화솔루션의 중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경영진의 신뢰를 보여준 것으로 분석된다. 유상증자에 따른 주주가치 희석 부담을 함께 나눴다는 점에서도 책임경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한화솔루션은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5300만주를 발행해 총 1조1713억원을 조달했다. 조달 자금 가운데 9000억원은 미국 태양광 통합 생산기지인 '솔라 허브'의 생산시설 확충과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 등에 투입한다. 나머지 2600억원은 채무 상환에 사용해 재무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미국 태양광 통합 생산기지인 솔라 허브는 잉곳과 웨이퍼, 셀, 모듈을 아우르는 태양광 수직계열화 체제를 갖추고 있다.

/원관희 기자 wkh@

## “묵직한 차체에 부드러운 승차감까지”

YG의 카톡 car talk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700km 장거리에도 편안함 유지  
에어 서스펜션이 노면 충격 흡수

지프 그랜드 체로키 L은 대형 SUV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다. 도심에서는 긴 차체와 넓은 차폭이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고속도로에 오르는 순간 이 차의 진가는 드러난다.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한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성격이 명확하다.

평소 차질이 있어 장거리 여행시 늘 예민했던 초등학생 자녀의 부담을 없앴다. 지프 차량은 다소 거칠고 투박하다는 편견을 깨고 여유로운 실내 공간과 쿼드라-리프트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의 부드러운 주행감은 조용함과 편안함을 전달했다. 서울 여의도를 출발해 전라남도 광주를 경유해 돌아오는 약 700km를 주행하며



지프 그랜드 체로키 L.

차량의 장단점을 알아봤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주행 질감이다. 대형 SUV 특유의 묵직함을 유지하면서도 불규칙 노면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는 승차감은 이 차의 최대 장점이다. 요철을 지날 때 차체가 불필요하게 흔들리거나 튀는 움직임이 적고, 충격을 한번 걸러낸 뒤 안정적으로 자세를 회복한다. 쿼드라-리프트 에어 서스펜션은 노면 상황에 따라 차체를 자연스럽게 제어하며 장거리 주행에서 높은 만족도를 제공했다.

/양성운 기자 ysw@

기술보증기금

R&D 사업화 800억 보증

기술보증기금이 'R&D사업화유통화보증'을 신설하고 올해 80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3월 기보에 따르면 이번 보증상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에 따라 정부R&D 성과와 공공연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혁신기업의 사업화 단계에 대한 금융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기술혁신기업들이 우수한 R&D 성과를 보유하고도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화 단계에 특화된 금융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R&D사업화유통화보증은 정부R&D 완료료제와 공공연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이전 기술료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금융상품이다. 기보는 기업의 기술성·시장성·사업성과 기초자산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네이버, 자사주 1조 소각…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 전환 속도

전략적 투자 유치·주주가치 제고  
브룩필드와 컴퓨팅 인프라 사전계약  
2028년까지 최대 90억弗 규모 조달

네이버가 약 1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다. 엔비디아의 전략적 투자와 브룩필드의 AI 인프라 협력을 양측으로 AI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면서 플랫폼 기업을 넘어 글로벌 AI 인프라 기업으로의 전환도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날 자사주 490만1094주를 소각한다. 지난달 24일 종가 기준 약 1조169억원 규모다.

네이버 측은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소각에 대해 엔비디아 투자에 따른 사후 조치라기보다 전략적 투자 유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함께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네이버는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보



AI가 네이버 각 세종 전경을 활용해 만든 이미지.

통주 724만1564주를 발행하는 10억달러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지를 결정했다. 신주 발행가는 1주당 20만4500원이며 납입 예정일은 오는 10월 30일이다. 납입이 완료되면 엔비디아는 네이버 지분 4.5%를 확보해 주요 주주가 된다.

브룩필드와는 AI 팩토리 구축에 필요

한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위한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2028년까지 최대 9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조달을 목표로 본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단순한 지분 투자가 아니다. 네이버와 엔비디아는 국가와 기업이 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독립적으로

AI를 구축·운영하는 '소버린 AI'를 실현할 최적의 파트너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AI 팩토리 구축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

AI 팩토리는 GPU와 전력·냉각 설비 등 AI 컴퓨팅 인프라에 AI 모델 학습·추론 기능을 결합한 차세대 데이터센터다. AI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을 공급하는 생산기지 역할을 한다. 네이버는 이를 국내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과 각국 정부의 소버린 AI 수요까지 겨냥한 사업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양사는 각자의 강점을 결합한다. 네이버는 자체 초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와 데이터센터 운영 기술을, 엔비디아는 GPU와 AI 컴퓨팅 기술을 바탕으로 AI 모델부터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네이버는 지난 6월 발표한 '각 세종' 내 55MW 규모의 엔비디아 DSX AI 팩토리 구축 계획을 2028년까지 200MW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종 목표는 1GW급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이다. 국내를 넘어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중동 등 글로벌 시장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AI 경쟁도 모델 개발에서 GPU와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인프라 확보 중심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경쟁적으로 나서는데 안정적 학습·추론 자원 확보가 AI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 네이버의 사업 무게중심도 AI 인프라로 넓어질 전망이다. 광고와 커머스 중심의 플랫폼 사업에 더해 GPUaaS(GPU를 클라우드 형태로 필요한만큼 빌려쓰는 방식)와 AI 팩토리가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아와 브룩필드라는 글로벌 파트너를 확보한 네이버가 AI 인프라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 국산 AI칩 심은 공공CCTV, 지방으로 확대

과기부, 영남권 지자체와 사업 추진  
올해까지 약 117억 투입, 1.8만대 전환  
중소 관제업체, 초기 데이터 확보 기회

정부가 주도하는 소버린 AI 전략이 공공 CCTV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국산 AI 반도체와 영상 관제 시스템을 결합해 분석·추론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다.

공공 영상정보를 외산 그래픽처리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기술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에 따라 국내 신경망처리장치(NPU) 설계 기업은 물론, 중소 영상관제 시스템통합(SI) 업체에 호재가 예상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7월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까지 약 117억원을 투입해 영남권 지방자치단체와 도로 관제 분야의 CCTV를 국산 NPU 기반 AI 관제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3월 수요기관 공모를 거쳐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한국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이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 국산 NPU는 리벨리온, 퓨리오사AI, 딥엑스, 모빌린트가 공급하고, 영상 관제 플랫폼 운영 및 시스템 통합(SI)은 이노랩과 인텔리빅스가 맡는다.

이번 수주로 인해 중소 영상관제 시스템통합(SI) 기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정부가 주도하는 소버린 AI 전략이 공공 CCTV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다.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들 기업은 기존 영상관리시스템(VMS)과 국산 NPU를 탑재한 AI 서버를 연결해 원활하게 구동되도록 최적화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 조달로 안정적인 수익 확보는 물론 주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반복 매출이 창출될 수 있다.

AI 영상분석 전문기업 이노랩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울산광역시 내 CCTV 총 8942대를 비전언어모델(VLM)을 활용한 영상분석 솔루션으로 전환한다. 수주 금액만 약 34억원으로 조사됐다. 안전AI딥테크 인텔리빅스는 한국도로공사의 전국 고속도로 CCTV 4700개 채널을 대상으로 약 37억원 규모의 AI 영상분석 사업을 수행한다. 자체 영상분석 코어 엔진 '빅스 2.0'을 적용해 사고·정차·낙하물 등 도로 위 돌발 상황을 탐지하는 분석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NPU 설계 기업들의 공공시장 확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조달 시장에 국산 AI 반도체 품목을

신설하고 공공 조달을 지원해 왔지만, 적용 분야는 행정과 에너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제한적이었다. 국산 NPU의 활용처가 공공 영상관제 분야로 확대되는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을 통한 AI 전환 대상 CCTV는 총 1만8100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통합 관제센터에 연계된 CCTV는 약 69만4000대에 이른다. 향후 지자체 관제센터의 노후 장비 교체와 지능형 관제 전환 수요가 이어질 경우 관련 기업들의 시장 확대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관련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전망이다. 입찰 조건상 일부 중견·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면서 공공 CCTV 시장의 1위 사업자인 한화비전은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대형 사업자가 빠진 공공 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국산 NPU 기반 AI CCTV 전환의 초기 데이터를 확보하게 된 셈이다.

/조민선 기자 msjo@

## ‘NC AX’로 AX 전문기업 정체성 강화

NC IDS, 사명 변경

엔씨의 IT 서비스 전문 자회사 엔씨아이디에스(NC IDS)가 사명을 엔씨에이엑스(NC AX)로 변경하고 인공지능(AI) 전환(AX) 전문 기업으로 새 출발한다.

3일 엔씨에 따르면 NC AX는 지난 2024년 10월 설립 이후 AI 기술을 산업 현장에 적용하고 사업화하는 AX 중심 기업

을 지향해 왔으며,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AI 기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AX 전문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NC AX는 AI 원천 기술을 보유한 NC AI와 협력해 엔씨 및 주요 계열사의 AX 전환을 가속화한다. 기업자원관리(ERP), 업무 시스템 개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 등 기존 IT 서비스 역량에 NC AI의 AI

기술을 접목해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회사는 그룹 내 AX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동시에 AI 기반 서비스와 솔루션을 지속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재진 NC AX 대표이사는 “회사가 보유한 프로세스 개선과 애플리케이션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NC AI와 협력해 AX 사업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 SKT-순천향대, 전국 학생에 AI 교육 지원

AI 에듀테크 솔루션 ‘AI 그림일기’ 공급

SK텔레콤이 교육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I)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육성에 나선다.

SK텔레콤은 순천향대와 협력해 강원·충청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AI 에듀테크 솔루션 ‘AI 그림일기’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회사가 순천향대와 수행하는 전국 학생 대상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2026 디지털새싹 사업’의 일환이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담당하는 프로그램으로 순천향대는 2년 연속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SK텔레콤은 올해 사업 참여 기관으로 협력 중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순천향대와 협력해 강원·충청권 초·중·고교생 4200여 명을 대상으로 AI·SW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교육 솔루션 AI 그림일기를 이 과정에 활용한다. AI 그림일기는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읽기·쓰기 및 표현 활동을 통해 문해력 향상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이용자가 하루 동안 있었



SK텔레콤이 순천향대와 협력해 AI 에듀테크 솔루션 ‘AI 그림일기’를 공급한다. /SK텔레콤

던 일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글로 입력하면 생성형 AI가 내용을 분석해 4개 장면으로 구성하고 각 장면에 맞는 이미지와 음성 내레이션을 만들어 준다.

AI가 만든 장면의 제목과 설명, 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이미지를 다시 생성할 수 있다. 자신이 작성한 문장이 이미지와 이야기로 구현하고 그 결과물을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문장 표현과 이야기 흐름을 구성하는 활동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다.

교사들의 수업 운영도 지원한다. 교사용 대시보드에서 학생들의 수업 참여 여부와 그림일기 작성 현황, 제출 결과 등을 확인하고 진행 상황에 맞춰 수업 지도가 가능하다.

/조민선 기자

## 삼성SDS, ‘국가 AI 컴퓨팅센터’ 착공

2028년까지 AI반도체 1.5만장 구축

삼성SDS가 컨소시엄 대표사로 참여하는 ‘국가 AI 컴퓨팅센터’가 착공에 들어간다. 오는 2028년까지 AI 반도체 1만5000장을 탑재한 공공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목표다.

이 사업에서 삼성SDS는 특수목적법인 코아크를 통해 1200억원을 출자하고 지분 30%를 확보한 최대주주다. 총 사업비는 2조5000억원이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에이아이 컴퓨팅센터(이하 코아크)는 전라남도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파크에서 ‘국가 AI 컴퓨팅 센터’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는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삼성SDS는 AI 반도체 1만5000장을 적용해 첨단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 연산 자원을 스타트업, 중소기업, 학계, 연구기관 등에 제공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AI 인프라 이용권 제공과 요금 할인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산업별 특화 AI 모델 개발, 대규모 AI 학습 추론 환경 지원 등을 통해 AI 인프라 활용 환경을 조성한다. 또 AI 기술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한다.

/조민선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50조 손실에 등 돌린 개미들… 미국 증시로 발길 향한다

국내 투자자 美 주식 순매수 6.7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변동성 키워  
韓증시 급등락에 투자자 신뢰 약화

코스피를 들었다 놔다 하는 반도체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질린 개미들이 한국 증시를 등지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쌀 때 사겠다’며 받아내던 개인의 대기자금과 ‘빚투’(빚내서 투자) 자금이 동시에 줄어든 반면, 미국 증시로 향하는 돈은 오히려 늘고 있다. 외신들은 “인공지능(AI)이 약속한 부를 가장 먼저 맛본 나라가 부를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일지 모른다”며 한국 증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국내 시장은 최근 한 달여간 증시가 추락하며 개인이 국내에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만 약 50조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 ◆변동성에 코스피 등지는 개미

3일 코스피는 5.12% 급락했다. 지난달 31일 1001.89포인트(+17.91%) 급등하며 최대 상승률을 기록한 지 하루만이다. 현 기증 나는 증시에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은 다시 미 증시로 향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7월 1~31일 서하 개미의 미 주식 순매수는 46억6862만 달러(6조7428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월



파능시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50억299만 달러)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순매수액이다.

개미들이 떠나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키워온 각종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때문이다. 미국 거래 데이터 분석업체 안유주얼웨일스에 따르면, 글로벌투자은행 시티는 “코스피 지수의 레버리지 급락 과정에서 36만 건 이상의 한국 마진 계좌가 강제 청산되었으며, 그중 62%가 35세 미만이었다”며 “이는 최근 몇 년간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가 실질적인 하락세로 전환된 가장 명확한 사례 중 하나”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겨냥해 ‘긴급시장안정화 조치권(가칭)’ 도입에 착수했다. 앞서 두 차례 대책에도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면서 배율 조정 등 강력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조치가 시장을 안정시키고 개인을 다시 불러들일까. 시장에서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금융 서비스 회사인 이토로(eToro)의 랄레 이코너 글로벌 시장 분석가는 “한쪽으로 쏠린 거래가 레버리지를 만났을 때 어

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며 “기술주의 반도체주의 큰 변동성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만 이를 AI 투자 논리 자체가 무너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안 된다”며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말했다.

## ◆“신뢰 회복, 시장 반등보다 오래 걸릴 수도”

글로벌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한국 증시 투자자의견을 ‘비중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최근의 ‘레버리지 청산’ 국면이 오히려 인공지능(AI) 투자 테마와 산업 수퍼 사이클에 올라탈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한국은 ‘중립’ 등급을 받아왔다. 대니얼K. 블레이크 가이프는 모건스탠리 전략가팀을 보고서에서 “쏠림 현상과 레버리지가 급격히 해소된 이후 코스피는 목표치인 9000까지 36%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며 코스피 단기 밴드를 5500~10500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전문가들과 외신은 최근 코스피 하락을 레버리지 ETF나 외국인 매도나 개인의 이탈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한다. 최근 반복된 급등락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가 약화된 결과라는 것이다. 한 개인 투자자는 “이재명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개인투자자들을 국내 증시로 다시 끌어들이는 좋은 기회였는데 아쉽다”며 “변동성을 즐길 투자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이쯤에서 정리하고 나간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2일(현지시간) “개인투자자의 투자 기회를 넓히고 해외 투자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AI 투자 열풍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시장이 반등하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정부에 대한 분노와 비판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말했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일자(현지시간) 최신호에서 ‘한국의 주식시장 호황이 극적으로 붕괴하고 있다(South Korea’s stock-market boom is collapsing spectacularly)’라는 제목의 비즈니스 칼럼을 내보냈다. 특히 이코노미스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호황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히는 한국이 주식 시장 급락의 후폭풍을 가장 먼저 겪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한국 증시가 앞으로 세계에서 벌어질 사태의 ‘전조(harbingers)’ 증상에 불과할 수 있다”고 짚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metro

## M7 몰락 아닌 세대교체… AI 투자 새 국면

(MS·애플 등 빅테크기업)

M7 시총 6월 한달간 약 2조달러 감소  
파인애플타임스 “생산적 거품 가능성”

인공지능(AI) 랠리를 주도한 ‘매그니피센트7’(M7:마이크로소프트·애플·엔비디아·구글·아마존·메타·테슬라)이 예전의 위상을 잃고 있지만, M7 주변의 AI 붐 자체가 거품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파인애플타임스(FT) 칼럼니스트 존 플렌다는 1일(현지시간) “한때 미국 증시를 지배했던 M7은 6월 한 달 새 시가총액이 2조달러 가까이 증발했다”며 AI 인프라 투자자 충분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안이 촉발됐다고 짚었다.

플렌다는 6월 M7의 폭락 이후 M7 종목들이 더 이상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들의

진단대로 “M7은 이제 대형주 성장동력을 가능케 하는 분석 틀로서 죽은 개념”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현상의 배경으로 밸류(가치) 투자에서 모멘텀(추세주종) 투자로의 이동, 패시브·인덱스펀드 자금 유입에 따른 대형주 쏠림 심화를 지적했다.

다수 헤지펀드·뮤추얼펀드가 반도체는 매수하고, 하이퍼스케일러는 공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 큰 추세가 방향을 바꾸면 극심한 변동성과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블루칩 명단’이 M7이 처음은 아니라고도 짚었다. 2010년대 초반 ‘FAANG’(페이스북·애플·아마존·넷플릭스·구글), 더 멀게는 1960년대 ‘니프티 피프티’(한 번 사면 영원히 보유해도 되는 우량주 50개)가 있었지만, 니프티 피프티에 포함됐던

에이본·플라로이드·코다·제록스는 훗날 줄줄이 몰락했다.

그럼에도 플렌다는 이번 AI 붐을 단순한 거품으로 단정 짓지 않았다. 그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보고서에서 “AI는 과거 범용기술과 달리 지식 생산 자체를 증강할 수 있다”고 평가한 점을 들어 ‘생산적 거품’ 가능성을 제기했다.

혁신의 결실은 초기 거품이 꺼지고 오랜 실험기를 거친 뒤에야 나타나는데 1840년대 영국 철도버블 당시 리즈-맨체스터 구간엔 노선이 하나들이면 충분했는데 6개나 깔렸을 만큼 과잉투자가 있었지만, 그 잔해 속에서 결국 철도가 세상을 바꿔놓았다고 소개했다.

예전의 신기술이 자금 낭비를 수반하더라도 결국 혁신을 가속하는 촉매가 됐듯, AI 역시 막대한 부채와 과열을 동반하고



ChatGPT로 생성한 관련 이미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혁신하고 문명을 진화시키는 ‘생산적 거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플렌다는 이번 AI 관련 쏠림 현상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한국 정부가 레버리지 개별주 ETF의 신규 상장을 중단하고 최소 예탁금을 3배로 올리는 조치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플렌

다는 국가·자산군을 아우른 분산 투자와 현금 비중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M7을 대신할 새 개념으로 이제는 메타·엔트프릭·엔비디아·구글·오픈AI·스페이스X를 묶은 ‘망고스(MANGOS)’가 이미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신한투자증권, 국내 첫 ‘AI 에이전트부’ 출범

AI 에이전트로만 구성된 독립부서

신한투자증권은 국내 금융사 최초로 AI 에이전트만으로 구성된 ‘AI 에이전트부’를 신설하고, 인간과 AI가 함께 일하는 새로운 협업모델 구축에 나섰다. 3일 밝혔다.

AX본부 산하의 ‘AI 에이전트부’는 정보 조사, 자료 작성 등을 수행하는 독립부서다. 팀장과 3개 담당 등 총 4개의 에이전트로 구성되며, 팀장 에이전트가 업무를 배분하면 3개의 담당 에이전트가 각자 역할을 수행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하면서 결과물을 산출하는 프로세스다. 실제 업

무를 AI 에이전트가 수행하더라도 최종 결과에 대한 검토는 인간이 담당하며, AI 거버넌스와 보안, 품질관리를 위해 AI 전문가 1인이 겸직한다.

AI 에이전트부의 첫 파일럿 업무는 홀세일 비즈니스 협업이다. 미팅 자료 및 제안서 작성, 시장정보 조사, 이슈 분석 등을 맡아, 직원들이 투자전략 수립, 신규 비즈니스 발굴 등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AI를 단순 자동화 도구가 아닌 함께 일하는 디지털 동료로 활용해, 임직원의 판단력과 AI의 실행력을 결합한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금융그룹의 AI비전인 ‘AI Native Company’ 하에 대고객·대직원·인프라·거버넌스 4대 영역에서 AI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AI 에이전트부를 가동하며 운영 원칙을 표준화하고, 단순 자동화를 넘어 AI 에이전트 간 협업 체계를 갖춰 나갈 방침이다. 이후 리서치와 WM, IB, 디지털 플랫폼 등 주요 부문에 AI 협업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AI 에이전트부는 단순한 디지털 과제를 넘어 회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전사 업무 전반에 AI 협업 영역을 넓혀 금융권 AI 혁신을 선도하는 증권사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 KB운용, 골드펀드 ETF 중심 개편

보수 낮추고 금 투자 접근성 높여

KB자산운용은 ‘KB스타 골드 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 중심 운용 구조로 전면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제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고, 운용보수 역시 대폭 낮아져 투자자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기존 ‘KB스타 골드 펀드’는 금 관련 파생상품 비중이 높아 퇴직연금 편입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개편에선 다양한 국내외 금 ETF를 활용하는 구조로 변경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을 40% 이하로 낮추면서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도

록 상품 구조를 개선했다.

또한 보수 체계를 시장 환경에 맞게 재정비해 운용보수를 기존 대비 약 40% 인하하고, 저비용 금 ETF를 적극 활용해 운용 효율성을 높였다. 비교지수(BM)도 국제 금 현물 거래의 대표 지표인 ‘LBMA Gold PM Price’로 변경해 국제 금 가격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종할 수 있도록 했다.

‘KB스타 골드 펀드’는 2008년 설정 이후 18년 이상 운용된 장수 펀드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팬데믹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시기에도 금을 활용한 분산투자 수단으로 꾸준히 활용돼 왔다.

/신하은 기자



# ‘점주 10%·1000명’ 모이면 가맹본부와 협상 가능해져

공정위, 가맹사업법 기준 마련  
점주 가입단체 정식등록 가능

등록단체 비율 30% 미만일 시  
미가입 점주 의견 수렴 의무화

전체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점주단체로 등록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이들과의 협의에 의무적으로 임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및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도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제·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시행을 앞둔 개정 가맹사업법의 구체적인 실행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한 영업표지(브랜드)를 사용하는 가맹점주 중 ‘10%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는 공정위(한

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정식 등록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소규모 가맹본부의 부담을 줄

이기 위해 최소 가입자 수는 30명 이상으로 하한선이 설정됐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대표성이 없다”며 점주단체와의 대화를 기피하던 관행을 깨기 위해 등록 문턱을 대폭 낮췄지만, 이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됐다. 협의를 요청한 등록단체의 가입 비율이 전체 가맹점의 30% 미만일 경우,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다른 점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해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보완했다.

아울러 소모적인 협회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를 마친 등록단체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향후 180일 동안 가맹본부에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새로운 주제라 하더라도 기존 협의 후 60일(가맹점 100개 미만 본부는 90일)이 지나야 재요청이 가능해, 가맹본부가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의 자율

성을 해치는 명의 도용이나 서류 위변조, 가맹본부가 가입을 강제한 경우 등은 등록이 취소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해 가맹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고 거래조건을 향상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점주단체의 등록요건 및 협의절차를 명확하게 규율함에 따라 점주단체의 난립·무분별한 협의 요청 등에 대한 가맹본부의 우려 역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농협, 농촌활력 플랫폼 ‘농심N천심’ 신설

범국민 농심천심운동 확산  
국민참여단 활동 참여 지원  
신규가입 시 커피쿠폰 제공

농협중앙회가 ‘농심천심(農心天心)운동’의 확산을 위해 농촌활력화 포털 ‘농심N천심’을 신설했다. 농심천심운동은 농업·농촌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농협이 실시 중인 범국민 농촌활력화 운동이다.

농심N천심은 농부의 마음(농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곧 하늘의 뜻(천심)이자 국가의 근간이라는 농심천심운동의 철학을 바탕으로 구축된 온라인 플랫폼이다.

그간 오프라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농심천심운동을 디지털 기반으로 확대한다.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농심천심국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참여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 및 참여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포털 명칭의 ‘N’은 농심과 천심을 잇는 ‘연결(AND)’,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는 ‘새로움(New)’, ‘NH농협’을 의미한다. 농협이 추진하는 농촌활력화와 상생의 가치를 담고 있다.

농심N천심 ▲농심천심운동 소개 ▲농촌재능니눔 중개 ▲농촌방문 및 체험 프로그램 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농심천심국민참여단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농촌활력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 포털 오픈을 기념해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회원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 30일부터 신규가입 회원 선착순 3만명에게 모바일 커피쿠폰을 제공한다. 이달 중순부터는 추천인 이벤트도 실시할 예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앞으로 농심N천심이 국민과 농촌을 연결하는 소통의 창구이자 농업·농촌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상생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KEIT “AI로 다양한 일상문제 해결”

100일간 ‘AI 라이프 챌린지’ 열어

국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사회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연구자, 국민이 머리를 맞댄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은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2026 AI 라이프 챌린지’를 8월 1일부터 총 100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가 주최하고 KEIT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제상을 바꾸는 AI, 모두를 위한 도전’을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챌린지는 국민 체감도와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족 등 기술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약자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의 선정 비중을 40%까지 늘린다.

대회 규모도 예년에 비해 커졌다. 총 상금 규모를 1800만원 상당으로 늘렸으며, 최고 영예인 산업통상부 장관상(상금 300만)을 신설해 대회의 위상을 높였다. 아울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벤처투자

등 다양한 공공·민간 기관이 후원에 참여해 국민의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실제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대회는 국민이 직접 생활 속 불편을 제안하는 ‘AI 라이프 아이디어 챌린지’와, 발굴된 과제를 바탕으로 연구자와 AI 개발자가 협력해 해결책을 도출하는 ‘AI 라이프 솔루션 챌린지’로 나뉘어 진행된다. 8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아이디어 챌린지는 AI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용원 KEIT 원장직무대행은 “AI 라이프 챌린지는 국민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작은 불편을 연구자와 개발자가 함께 해결하는 열린 혁신의 장”이라며 “국민의 작은 아이디어가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술로 거듭나게끔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술의 혜택이 사회 곳곳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챌린지의 상세한 참여 방법과 안내사항은 KEIT 홈페이지와 공식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이달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홍줄나비’ 지정

환경변화 따른 서식지 파괴 영향

날개에 선명한 붉은 줄무늬가 특징인 곤충 ‘홍줄나비’ (사진)가 8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최근 지속되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인 홍줄나비를 8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홍줄나비는 날개를 편 길이가 57~60mm인 중형 나비로, 흑갈색 바탕의 날개 뒷면에 뚜렷하게 새겨진 붉은 줄무늬에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1년에 딱 한 번 어른벌레(성충)가 되며 주로 7~8월에 관찰된다. 국내 나비 중에서는 보기 드물게 잣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특성이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도 동북부 산지의 천연림 중심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산지의 낮은 기온에 적응해 살아온 산지성 나비인 탓에, 기후변화에 따른 연평균 기온 상승이 최근 가장 큰 생존 위협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홍줄나비는 활동 범위가 매우 좁은 편이다. 이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서식지가 훼손되거나 온도가 올라가더라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가 사실상 불



가능하다. 전문가들이 환경변화에 따른 서식지 파괴를 홍줄나비 개체수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는 이유다.

한편 홍줄나비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I 급을 무단으로 포획, 채취, 훼손하거나 죽일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홍줄나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 또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 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공정위 사기죄 숨기고 가맹계약 기만적 정보제공 적발

와인·커피 소매 가맹브랜드 ‘비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임원의 형사처벌 사실을 숨기고 가맹계약을 맺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별빛강물이 정보공개서에 임원의 형 신고 사실을 누락하고 가맹 희망자에게 적법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의 고 모 대표는 사기죄를 범해 2021년 11월 형이 확정됐으나, 본사는 이 사실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가맹 희망자 43명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임원의 사기죄 신고 사실이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라며 이를 숨긴 것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별빛강물은 가맹 희망자 42명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필수 자필 기재 사항이 누락된 확인서를 교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권익위, 30만명에 공공기관 청렴도 묻는다

이달부터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진단하고 부패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공직자 30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3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57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8월부터 11월 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외부청렴도)과 내부 공직자(내부청렴도)를 대상으로 업무 처리 과정에서 느낀 부패 인식과 실제 경험 등을 측정한다. 결과는 종합청렴도 점수에서 가장 큰 비중(60%)을 차지하는 ‘청렴체감도’ 성적에 반영된다. 설문조사는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답변 내용은 철저히 암호화되어 보호된다.

권익위는 설문조사로 측정된 청렴체감도에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40%)’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청렴도 감점(최대 15%)’을 종합해 올해 12월 최종 종합청렴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에 따라 각 기관은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

정일원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공공부문 변화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공공부문의 변화를 이끄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세종=한용수 기자



# “이 가격 밑으론 팔지 마”… 집값 담합 입주민 검찰 송치

카카오톡방서 시세 조작 등 혐의  
서울시 “온라인 담합 단속 강화”  
최대 2억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아파트 입주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특정 가격 아래로 매물을 내놓지 말도록 유도하고, 낮은 가격의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비난한 입주민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아파트 집값 담합을 주도한 A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의 한 아파트 입주민 단체 카카오톡방에서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반복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시에 따르면 A씨는 특정 매물을 두고 “〇〇억원 이상이 정상이다”, “국민 평형은 최하 〇〇억원 이상으로 가야 한다”는 등의 글을 올리며 구체적인 하한 가격을 제시했다.

또 자신이 주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들을 ‘가두

리 부동산’으로 지칭하며 비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두리들에게 휘둘리고 있다”, “가두리 멘트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등의 글도 여러 차례 게시했다.

A씨는 매도인의 의뢰를 받아 정상적으로 광고된 매물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하위 매물이라고 주장하고, “하향으

로 꺾으려는 물건”이라고 표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같은 행위가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

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나 관련 피해를 발견한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의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주택 공급 부족과 전세시장 불안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집값 담합이 이어지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고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인 만큼 고강도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 교육부, 대규모 초과모집 대학에 칼 빼든다

과실 초과모집 땀 담당자 징계 요구  
필요시 수사 의뢰·재정 패널티 검토

교육부가 최근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사례가 잇따르자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앞으로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최근 순천향대의예과에서 모집계획보다 11명을 초과 선발하는 등 대학의 초과모집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과모집은 당해 연도뿐 아니라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져 다른 학년도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동점자 발생에 따른 초과모집은 대학별

동점자 처리기준에도 불구하고 합격선에서 동일한 평가 결과를 받은 지원자가 발생할 경우 나타난다. 2026학년도에는 지원 건수가 전년 397만6875건에서 439만2402건으로 10.4% 증가하면서 동점자에 따른 초과모집도 늘어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대학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은 총원할격자 선발 과정의 업무 착오나 정원의 특별전형 모집인원 산정 과정에서의 오류 등이 주요 원인이다.

2026학년도에는 대학 과실로 5명 이상 초과모집이 발생한 대학으로 순천향대(11명), 김천대(8명), 중원대(24명)가 확인됐다. 이 밖에도 10개 대학에서 13명이 대학 과실로 초과 선발됐다.

교육부는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을 개정해 대학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학에는 동점자 처리기준과 전형 운영 관리체계에 대한 자체 점검도 권고한다.

아울러 2027학년도부터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해당 대학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차차년도 모집인원이 감축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초과모집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 경북도, 1433억 투입 스마트 APC 확대

농산물 유통체계 디지털 전환

경북도가 AI와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구축을 확대하며 농산물 유통체계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023년부터 기존 APC를 스마트 APC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26개소를 대상으로 스마트화를 진행 중이다. 도내 APC 133개소 가운데 88개소는 설치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시설로, 인력 부족과 유통비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스마트 APC는 AI가 농산물의 색상·당도·외형 등을 분석하고 자동화 설비가 선별·포장·물류를 수행하는 미래형 산지유통 시설이다. 데이터 기반 품질 관리와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작업 효율을 높이고 품질 경쟁력 강화와 유통비 절감, 소비자

신뢰 향상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앞으로 노후 APC를 스마트 APC로 전환하고 AI 기반 수급·가격 예측, 온라인도매시장 연계,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해 생산부터 선별, 출하, 판매까지 연결되는 미래형 산지유통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사업비 1433억원을 투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 506억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스마트 APC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생산부터 판매까지 데이터로 연결되는 산지유통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과 유통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2일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이상일 시장이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폐막선언을 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 흥행·감동 다 잡은 ‘용인 대학연극제’ 성료

경희대 등 ‘베스트5’ 선정

용인특례시는 지난 2일 용인시평생학습관 큰어울마당에서 국내 유일의 체류형 대학생 연극 축제인 ‘제3회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폐막식을 개최했다.

올해 연극제에는 전국 49개 대학팀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본선에 오른 14개 팀이 용인 곳곳에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이날 폐막식에는 이상일 시장과 본선 진출 대학 연극인, 연극협회 관계자, 심사위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대미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순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정재호 한국연출가협회 이사장, 한원식 한국연극협회 경기도지회장 등 연극계 인사들도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폐막식은 참가자들이 합숙기간 준비한 합동 길놀이 공연으로 시작됐으며, 용인 산림교육센터 등에서 함께 생활하며 공연을 준비한 과정과 무대 뒤 이야기를 담은 영상이 상영돼 감동을 더했다.

시상식에서는 경희대, 중앙대, 동아방송대, 인천대, 경성대 등 5개 팀이 ‘베스트5’에 선정됐다. /용인(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 부산시-부산관광공사 해녀와 해양문화 체험

내달까지 20회 운영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영도 감지해변에서 해녀와 함께하는 해양문화 체험 프로그램 ‘해녀와 함께 바다를 배우다’를 8월 4일부터 9월까지 20회 연다.

프로그램은 영도 해녀가 직접 참여해 삶과 바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참가자와 함께 스노클링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안전요원의 지도로 스노클링을 하며 해양생물을 관찰하고, 체험 후 K-FOOD도 맛본다. 방문객이 적은 평일 상권을 살리기 위해 8월은 평일 위주로, 9월부터는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약 3시간, 화차당 15명씩 총 20회다. 참가 대상은 만 10세 이상이며 참가비는 1인 3만원으로 해녀 문화 해설과 스노클링 장비·안전 교육, K-FOOD가 포함된다. 신청은 부산 마린파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국민대, 팔레스타인 AI 인재 30명 육성

KOICA와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팔레스타인 인재 30명이 국내에서 인공지능(AI) 박사과정 교육을 받고, 귀국 후 현지 연구개발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인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민대학교(총장 정승렬) 산학협력단과 글로벌개발협력연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팔레스타인 AI 분야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AI Ph.D.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KOICA의 팔레스타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기술 R&D 역량강화 사업의 인재 양성 과정이다. 팔레스타인 우수 인재 30명을 선발해 국민대 AI-SW대학원 박사과정 교육과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연수생들은 AI 핵심기술과 산업·공공 분야 응용기술을 연구한다. 연구 주제는 팔레스타인의 주요 현안과 연계해 정하며, 연구 결과가 현지 문제 해결과 디지털 전환에 활용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박사과정 동안 국내 연구진과의 공동연



팔레스타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혁신기술 R&D 역량강화 사업 착수회의.

/국민대

구, 산학협력 프로젝트, 인턴십, 국제학술대회 발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이를 통해 연구 역량과 현장 문제 해결 능력, 프로젝트 기획·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학위 취득 이후 연수생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를 연결하는 연구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설계됐다. 연구개발 성과가 제품과 서비스,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국민대는 이번 사업을 학교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연계해 AI 교육·연구 역량을 국제개발협력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23<sup>th</sup>kepik 전력산업기술기준  
Korea Electric Power Industry Code

# 2026 KEPIC-Week

## Advanced Standards & Global Partner



2026. 8. 25.(화) - 8. 28.(금)  
정선 하이원그랜드 호텔

전력산업계 최신 기술동향과 기술기준 적용 경험을 공유하는  
국내 최대 정보교류의 장

주최 KEA 대한전기산업연합회  
Korea Electrical-Industry Association

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찬 전력산업계

지원 GWT 강원관광재단



# 면세점, 外人 매출 5조 눈앞… 객단가 줄어 수익성은 과제

상반기 방한객 1071만명 돌파  
구매자 664만명·29.4% 증가  
판매액 전년보다 3.2% 늘어

1인당 구매액 75만2000원  
내국인 소비 둔화까지 겹쳐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국내 면세점을 찾는 외국인 구매객도 대폭 늘어났다. K-콘텐츠 열풍과 위안화 강세에 힘입어 외국인 매출은 5조 원에 육박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하지만 중국 보따리상(다이아) 중심에서 개별 관광객 위주로 구조가 재편되면서 1인당 구매 금액(객단가)은 하락해 수익성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3일 한국면세점협회 및 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방한 외국인 수는 1070만99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다. 이 같은 관광객 유입에 힘입어 올해 상반기 외국인 면세점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면세구역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방한 외국인 수가 1070만 명을 기록했다. /뉴시스

구매객 수도 전년 동기(513만 명) 대비 29.4% 증가한 664만4924명을 기록했다. 구매객 증가에 따라 상반기 외국인 면세점 매출은 4조9967억 원으로 전년 동기(4조8415억 원) 대비 3.2% 늘어났다. 지난해 상반기 전체 면세점 매출이 전년 대비 14% 감소하며 부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완만한 회복세로 돌아선 셈이다. 특히 지난 6월 외국인 매출은 9176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4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9000억 원을 다시 넘어섰다. 전체 면세점 매출(1조1286억 원) 가운데 외국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81.3%에 달했다. 이 같은 실적 반등의 배경에는 개별 관광객 중심의 체질 개선과 마진 구조 변화가 있다. 과거 면세점 매출을 견인하던 대형 다이아공에게 지급하던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전년 대비 6%포인트 이상 낮추면

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여기에 더해 올해 상반기 원·달러 환율(월평균 매매기준율)은 평균 1482.88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상승해 외국인의 원화 기준 구매 여건이 개선됐다. 특히 위안화 강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원·위안 환율은 평균 216.08원으로 전년 동기(196.55원)보다 9.9% 올랐다. 이에 따라 전체 방한 외국인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원화 기준 구매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업계는 소수 보따리상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젊은 개별 관광객을 잡기 위한 체질 개선에 나섰다. 해외 명품 위주 구성에서 벗어나 K-뷰티, 패션, 식품, 체험형 콘텐츠를 전면에 배치했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의 경우 올해 상반기 외국인 뷰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식품 매출은 62% 증가하며 변화된 소비 트렌드를 입증했다.

그러나 양적 성장 뒤에는 객단가 하락이라는 그늘이 존재한다. 올해 상반기 외국

인 1인당 평균 객단가는 약 75만2000원으로 직전 반기보다 3.2% 감소했다. 외국인 객단가는 2021년 2555만 원에서 2022년 1049만 원, 2023년 184만 원, 2024년 118만 원으로 낮아진 데 이어 올해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고가 명품을 대량 구매하던 다이아공의 비중이 줄고, K-뷰티와 디지털,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개별 관광객이 늘면서 구매 금액이 분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내국인 소비 둔화까지 겹쳤다. 올해 상반기 내·외국인 전체 매출은 1월 2842억 원에서 6월 2110억 원으로 감소하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외국인 매출이 5조 원에 근접하며 숨통이 트였지만 내국인 소비 침체와 낮아진 객단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외형 성장이 실질적인 영업이익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 세븐일레븐, ‘글로벌 로컬 라면’ 300만개 돌파

소도시 미식여행 수요 공략  
도쿠시마·다카마쓰 상품 흥행  
항공사 협업으로 현지 맛 구현

세븐일레븐이 글로벌 라면 운영 전략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선보인 ‘도쿠시마라면’, ‘세븐셀렉트 정호영다카마쓰우동’ 등 해외 지역 명물 라면의 누적 판매량이 최근 300만개를 넘어섰다. 최근에는 대도시 관광보다 지역 고유의 음식과 문화를 즐기는 ‘소도시 미식 여행(Gastronomy Tourism)’이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의 엔저 현상과 맞물려 도쿄, 오사카를 벗어나 지역별 특색 있는 먹거리를 찾는 여행 수요가 늘면서 세븐일레븐도 이를 상품 전략에 반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해외 현지의 맛을 구현하



해외 소도시 미식 여행 트렌드가 부상하면서 세븐일레븐이 선보인 글로벌 라면 운영 전략도 탄력을 얻고 있다. /코리아세븐

는데 그치지 않고 항공사와 협업체 여행의 분위기를 살린 상품을 선보였다. 지난 3월 진에어와 협업체 일본 다카마쓰의 사누키 우동을 모티브로 출시한 ‘정호영다카마쓰우동’은 출시 2주 만에 20만개 판매를 돌파하며 라면 카테고리 판매 1위에 올랐다. 지난해 5월에는 이스타항공과 협업체

일본 도쿠시마현의 라면 스타일을 구현한 ‘도쿠시마라면’을 출시했으며, 출시 3주 만에 30만개가 판매됐다.

세븐일레븐은 겨울철 국물라면 수요에 맞춰 새로운 해외 지역 명물 라면도 개발하고 있다. 상품기획자(MD)가 현지 식당 20여 곳을 방문해 면의 식감과 국물 맛을 구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에는 소도시 미식 여행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국가의 로컬 면 요리를 상품화해 차별화 라면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라면 직소싱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홍콩 볶음면 브랜드 ‘돌(DOLL)’의 ‘초면왕’ 2종을 국내 최초로 단독 출시했으며, 2024년부터는 일본 컵라면 브랜드 ‘마루짱’ 3종도 직소싱해 판매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 SK플라즈마, 희귀·중증 혈액질환 치료제 확대

레볼팍정 품목허가 후 공급

SK플라즈마가 희귀·중증 혈액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SK플라즈마는 저혈소판증 치료제 ‘레볼팍정 25mg·50mg’ (사진)에 대한 국내 공급을 본격화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은 각각 2만8398원, 5만5188원이다.

레볼팍은 엘트롬보팍올라민 성분을 처방한 전문의약품이다. 골수에서 혈소판 생성을 촉진해 혈소판 수를 늘리는 기전을 갖는다. 만성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 치료 등에 쓰인다.

SK플라즈마는 지난 5월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레볼팍정 품목허가를 획득해 혈액제제 분야에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인 알부민, 면역글



로불린 등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해 왔고 앞으로도 혈장분획제제 전문성을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희귀·난치성 질환은 환자 수가 적더라도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며 “혈액질환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혈액 관련 치료제 분야에서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환 전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mke236@

## GS25, 신선식품 앞세워 근거리 장보기 공략

도입 5년 만에 특화매장 1000곳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신선강화형 매장 1000호점인 ‘GS25천안 두정골든점’을 열었다고 3일 밝혔다. 1000호점인 GS25천안두정골든점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문을 연 약 40평 규모의 매장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배후에 둔 주거 상권에 위치해 신선식품 중심의 근거리 장보기 수요를 겨냥했다. 신선강화형 매장은 채소, 과일, 계란, 육류 등 신선식품 구색을 확대해 편의점을 생활밀착형 장보기 채널로 확장한 모델이다.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일상적인 장보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2021년 처음 도입된 이후 5년 만에 1000호점을 넘어섰다. GS25는 일반 점포 확대 속도를 조절했던 지난해에도 신선강화형 매장을 217개 늘렸으며, 올해는 상반기까지 226개를 추가해 지난해 증가 폭을

넘어섰다.

이 같은 운영은 GS리테일의 슈퍼마켓 GS더프레시와의 시너지를 기반으로 한다. GS더프레시의 신선식품 소싱 역량과 산지 네트워크, 상품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편의점에서도 신선식품 운영 체계를 구축했다.

신선강화형 매장의 일평균 매출은 일반 매장보다 100만원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 기준으로는 약 3000만원의 추가 매출 효과가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 신선강화형 매장의 신선식품 매출은 일반 매장보다 약 12배 높았다. 축산 상품 매출은 일반 매장 대비 51배, 계란은 661%, 두부는 640% 높은 매출을 기록했다.

GS25는 신선강화형 매장의 수익성이 확인되면서 예비 창업자들의 문의와 기존 소매점의 전환 요청, 신선식품 협력업체의 입점 제안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 현대H몰 온누리샵에 경동시장 스토어 입점

현대홈쇼핑은 공식 온라인몰 현대H몰 내 온누리상품권 전용관 ‘온누리샵’에 ‘경동시장 스토어’ (사진)가 입점했다고 3일 밝혔다. 경동시장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60년 전통의 대표 전통시장으로, 국내 최대 인삼 시장이자 한약재·건어물·농산물 전문 시장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H몰에 입점한 경동시장 스토어에서는 국산 수삼을 비롯해 보리, 쌀, 수수 등 다양한 농산물을 판매한다.

/김서현 기자



## 오뚜기, 젠지 파트너십 마케팅 본격화

LCK 행사서 협업 성과 알려  
글로벌 브랜드 접점 확대

오뚜기가 e스포츠 구단 젠지(Gen.G)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용해 체험형 마케팅을 확대하고 있다.

오뚜기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6 LCK 팀 로드쇼 젠지 하우스(HOUSE OF GEN.G)’에 참가해 체험형 브랜드 공간 ‘GEN KITCHEN’을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HOUSE OF GEN.G’는 젠지의 LCK 정규 시즌 경기와 선수 팬미팅, 스트리머 이벤트 등을 함께 진행하는 e스포츠 행사다. 오뚜기는 현장에서 젠지와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알리고 젊은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브랜드 체험 공간을 마련했다.

‘GEN KITCHEN’에서는 젠지 리그 오브 브레전드 선수 5명과 오뚜기 제품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기인, 캐니



2026 LCK 팀 로드쇼 젠지 하우스 내 체험형 브랜드 공간 ‘GEN KITCHEN’ 현장. /오뚜기

언, 초비, 롤러, 듀로 선수별 콘셉트에 맞춰 게임과 포토존, 시식 행사 등을 구성했으며, UNO 브리또와 UNO 핫도그 등 간편식 제품도 함께 선보였다.

식품업계는 최근 e스포츠와 게임을 활용한 마케팅을 강화하는 추세다. 젊은 소비층과의 접점을 넓히고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체험형 행사와 협업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전세계 최초!

재밋고~  
맛있는!

# 이머시브 뮤지컬 **고래밥**

바다 대운동회

VS



## 07.24(금)~08.16(일)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

주최, 주관



오리온



(재)마포문화재단

Contents Creative Group  
Artcube

마케팅

투이제이컴퍼니



아츠컴퍼니

공연문의

02-766-9001



# 민간 우주시대 개막... 한화, 새로운 우주산업 알린다

29일 '우주의 조약들 오픈 컨퍼런스' 과학·교육·산업·인문 전문가 참여 오는 15일까지 참가신청 받아

한화그룹이 우주인재 육성의 저변을 넓히고 민간 우주산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공개 컨퍼런스를 연다. 한화그룹은 오는 2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우주의 조약들 오픈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우주의 조약들'은 한화그룹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5년째 운영하는 청소년 우주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다. 매년 중학생 30여명을 선발해 우주과학 교육과 전문가 강연, 진로 탐색 기회 등을 제공해왔다.

올해는 처음으로 일반대중이 참여하는



한화그룹 '우주의 조약들' 오픈 컨퍼런스 'Space, with us' 포스터. /한화그룹

행사로 확대한다. 스페이스X의 재사용 발사체를 계기로 민간 우주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주를 새로운 기회이자 산업의 영역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컨퍼런스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를 비롯해 전은지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조승연 작가, 천문학자 지용배, 정의훈 산업 애널리스트 등이 연사로 참여한다. 과학과 교육, 산업, 인문 등 다양한 관점에서 우주산업의 변화와 가능성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받는다. 구체적인 일정과 프로그램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 우주산업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발사체와 위성 제작·운용을 연계하는 통합 역량이 중요해지고 AI와의 결합도 빨라지면서 글로벌 우주기업의 대형화와 사업 통합이 이

어지는 추세다.

한화그룹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해 2040년까지 우주항공과 AI 분야에 총 55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독자 발사체와 위성망, 국방 AI를 아우르는 통합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4%대로 늘리고 보유 목적을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한국판 스페이스X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믿음으로 우주의 조약들을 5년째 이어왔다"며 "우주를 향한 꿈을 가진 다음 세대가 성장해야 대한민국에서도 스페이스X와 같은 우주기업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 프로모션'

중소기업중앙회가 8월 한 달간 '노란우산 온라인 가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3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가 이달 31일까지 노란우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규가입 시 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모바일 5만원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중기중앙회



## SK인텔릭스, 나무엑스 신규 광고 선포

SK인텔릭스가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 UHX)'와 함께하는 일상을 담은 신규 광고를 공개했다. 3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로봇과사는 시대'를 주제로 제작한 이번 광고는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가 일상 속 다양한 순간에 새로운 일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을 담았다. /SK인텔릭스



## GC녹십자웰빙, 비만질환 영양치료 논의

GC녹십자웰빙은 지난달 25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실제 비만 진료 현장에서 영양치료의 최적 활용 가이드: 임상 적용 경험'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 임상 경험, 체지방 감량을 위한 구체적인 요법 등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GC녹십자웰빙



## 한화, 건설현장에 팔빙수·수박화채 제공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서머 세이프티(Summer Safety) 푸드트럭' 행사를 진행한다. 현장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며 쉴 수 있도록 팔빙수와 수박화채를 제공한다. /한화 건설부문



## KB국민은행-키페어, 양자내성암호 연구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1일 양자내성암호(PQC) 전문기업 키페어와 '양자컴퓨팅 시대에 대비한 보안 기술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왼쪽부터)이창근 (키페어 대표이사)와 이재용 KB국민은행 정보보호본부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KT온마루에 찾아온 관람객이 KT 스포츠 팝업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 /KT

## 광화문서 'KT 스포츠 구단' 역사 한눈에

KT, 'KT 스포츠 팝업 전시' 운영 AI 활용 킬링 제작 프로그램도

KT는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KT 스포츠 팝업 전시'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KT 스포츠 구단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아이템과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고객 참여형 공간으로 구성했다. KT 스포츠 구단은 프로야구 KT 위즈, 프로농구KT 소닉붐, e스포츠KT 롤스터 등이 있다.

관람객들은KT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에게 응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작성된 메시지는 대형 LED 월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KT 위즈와KT 소닉붐 선수 포토존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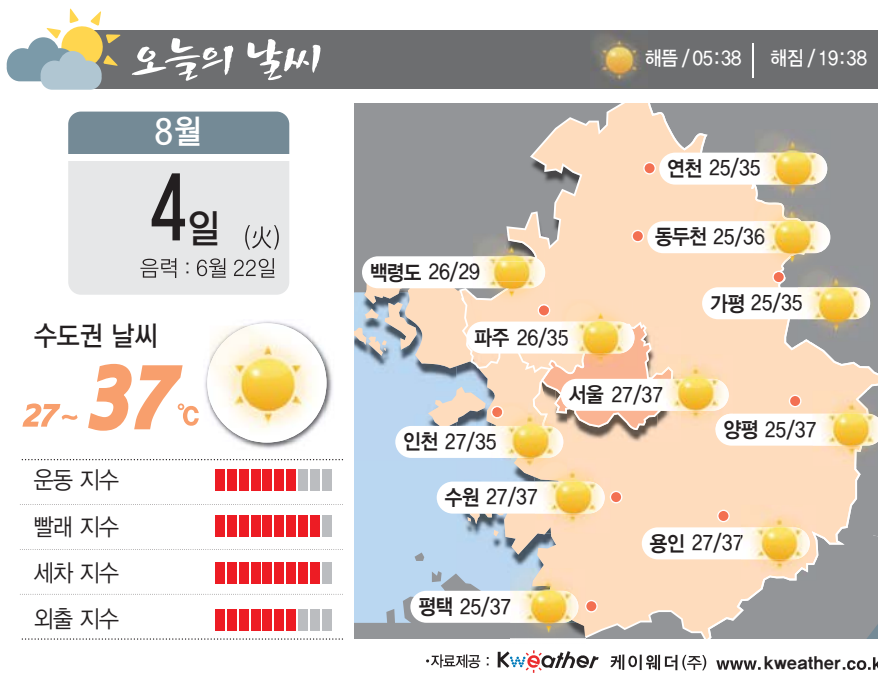
또 구단별 주요 역사와 우승 순간을 담은 헤리티지 갤러리, 공식 유니폼과 응원 굿즈 전시,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한 응원 영상, KT 롤스터 선수들의e스포츠몰 품 전시 등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했다.

AI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도 있다. 관람객이 사진을 촬영하면 로봇이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AX 로봇 드로잉 공간을 운영한다. AI 기능을 활용해 KT 스포츠 응원 인증사진을 촬영하는 AX 포토 어시스트와 KT 스포츠 구단 응원용 외판 킬링을 직접 제작하는 스포츠 커스텀 DIY 프로그램도 있다.

전시 기념 이벤트도 연다. 전시 관련 쿠키에 참여하거나 개인 SNS에 관람 후기를 남긴 방문객은 추첨을 통해 친환경 에코백, 우드 액자 등 기념품을 증정한다.

전시는 KT광화문빌딩 웨스트 2층 온마루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하며 관람료는 무료다.

KT 홍보실 김동훈 전무는 "KT 스포츠 팝업 전시는 스포츠와 AI 기술을 결합해 고객들이KT 스포츠의 역사와 응원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고객과의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민선 기자 msjo@



## 강경선 교수, 강스템바이오텍 CSO 취임

글로벌 기술이전 전략 강화

강스템바이오텍은 창업자이자 기술고문인 강경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사진)를 최고과학책임자(CSO)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강스템바이오텍은 줄기세포치료제의 개발 및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바이오 제약사다. ▲골관절염 치료제 오스카(OSC A)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피부 오가노이드 등을 파이프라인으로, 혁신 바이오의약품의 임상 개발과 글로벌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강경선 CSO는 2010년 강스템바이오텍을 창업해 2015년 코스닥 상장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피부·모낭 오가노이드 플랫폼 연구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연구



개발 우수성과30선'에 선정되는 등 줄기세포·재생의학 분야에서 꾸준히 연구 역량을 입증해 왔다. 강 CSO는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R&D, 임상 개발 전략, 파이프라인 기획, 오가노이드 플랫폼 고도화 등 연구개발 전반을 총괄하며 회사의 중장기 기술 비전을 수립할 예정이다.

강 CSO 취임을 계기로 강스템바이오텍은 'Science Driven Company' 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기술이전을 겨냥한 파이프라인 전략을 강화한다. 특히 최근 임상 2a상에서 통증 완화 및 연골 구조 개선 데이터를 확보한 오스카와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평가 플랫폼의 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수정 수습기자 kcrystal@

## 영유아 발달 점검부터 전문기관 연계까지

삼성복지재단 '새싹과단비' 플랫폼

삼성복지재단이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맞춤형 지원 정보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선보였다.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발달 수준을 쉽게 확인하고 필요한 놀이 콘텐츠와 전문기관 정보를 연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삼성복지재단은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영유아 발달지원 플랫폼 '새싹과단비'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새싹과단비'는 영유아 발달 체크를 비롯해 시기별 발달 정보, 맞춤형 발달지원 놀이, 지역별 전문기관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플랫폼이다. 부모와 교사가 아이의 발달 수준을 이해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플랫폼 구축에는 최근 늘어나는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이 반영됐다.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DST) 결과 '추적점사요망' 판정을 받은 영유아 비율은 2012년 2.1%에서 2023년 12.3%로 증가했으며, '심화평가권고' 비율도 0.9%에서 3.3%로 늘었다.

삼성복지재단은 부모와 교사가 검사 결과 이후에도 적절한 정보를 얻고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육아정책연구소와 약 2년간 플랫폼을 공동 구축했다.

플랫폼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개발한 영유아 발달체크 도구(K-SIED)를 무료로 제공한다. 결과에 따라 가정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발달지원 놀이 콘텐츠와 지역별 전문기관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 인사 ◆행정안전부 ◇과장급 정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기획전략과장 양창영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정보 ▲산업동향과장 정선경 ▲가계수지동향과장 박순욱 ▲표본과장 최재혁 ▲국가데이터혁신과장 이철희 ◆행정통계과장 송주화 ▲호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장 백종립

## 부음 ▲김충홍씨 별세, 이경심씨 남편상, 김혜경 김혜량 김미라씨 부친상, 양대수 김재선 이상원씨 장인상, 강희정씨 시부상, 김승현(매일경제 사회부 기자) 김지우씨 조부상, 양재용 양석진 김승원 이유현 이유건씨 외조부상=3일 동광양장례식장, 발인 4일 오전 8시. 061-795-7700



# 모두는 폭염 속에서도 존엄하다



서 선 미 역

기후에세이

덥덥한 여름, 대형마트에서 사 온 식료품을 꺼내 정리하다 자꾸 눈에 밟히는 모습이 있었다.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안내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손짓을 하던 어린 청년이다. 스물에서 스물다섯 남짓으로 보이는 남성 청년으로부터 50m쯤 떨어진 지점에는 대형 송풍기가 서 있었다. 강력한 바람이 나 올 터이다. 그 바람이 마르고 어린 청년의 땀을 식혀줄 것이다. 그런데도 마음은 도저히 편해지지 않았다. 차량 에어컨 바람이 차가워진 소매 옷을 걸쳐 입은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질병관리청은 행정안전부 폭염대책 기간인 매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500여 응급실에 내원한 온열질환자 수를 집계한다. 지하주차장은 폭염 속에서 온열질환 위험이 매우 높은 기후 사각지대다.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수많은 차량의 엔진과 에어컨에서 나오는 고온의 열기가 지하 공간으로 여과 없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공기 순환도 잘되지 않아 열기는 갇히는 데다 땀마저 증발하지 않아 체감온도는 훨씬 높게 치솟는다.

정부는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실내 작업장에 대한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단순 기온이나 습도가 아닌 체감온도 기준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환기 및 냉방 장치를 통해 공기를 순환시켜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직은 권고 수준이어서 강제성은 없다.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지금 기존 노동법만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형마트 내부는 바깥 날씨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시원했다. 일주일 치 식료품을 구입한 뒤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위해 출구를 찾았다. 옛되어 보이던 청년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줄지어 있는 차량을 안전하게 안내하기 위해 신호봉을 들고 좌우로 손짓을 하고 있었다. 차분하고 침착했다.

인류가 초래한 기후 위기는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은 채 살아온 우리 사고와 행동의 퇴적물이다. 나아가 기후 위기가 더 심각해진 상황에서 기후 약자라는 타자를 직면하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고통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어른들이 만든 기후 위기 문제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는, 앞으로 더 받아낼 미래세대도 그들 중 하나다. 뜨거운 햇볕 아래 길 위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야외 노동자, 도시가 만든 기후

사각지대인 지하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노동자, 그들 역시 기후 약자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기후 위기가 안겨주는 고통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 8월 1일 기준 올해 이미 온열질환자 수가 1700명을 넘어섰다. 논과 밭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축사에서, 거리에서, 우리 바로 곁에서 수많은 이들이 뜨거운 더위를 피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내고 있다. 폭염이 고통이 되어 그들의 몸을 날카롭게 파고든다. 법 조항은 무감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이들은 폭염을 온몸으로 견디며 삶을 이어가는 존엄한 개인들의 고통에 공감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그 어린 청년의 존엄을 떠올린다. 그곳의 내일, 온도와 습도가 그 존엄에 걸맞은 기준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 정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스러져가는 그 '존엄'들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이 8월의 폭염 속에서 법과 행정 이 가져야 할 마땅하고 당연한 태도다.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는 말이다. 8월 31일, 활동을 마치고 문을 닫는 존엄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들 역시 이 태도를 지녔기를 바란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수석정책전문위원

## 순회경선은 이제 시작인데



기지 수첩

서 예 진  
(정치부)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집권여당이자 원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당원대회 순회경선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됐다. 순회경선은 매 주말마다 권역별로 열리고, 오는 17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승자를 가른다.

그런데 순회경선은 이제 시작됐지만, '이번 전당대회는 지겹다'는 이야기를 저번달부터 심심찮게 들었다. 그만큼 이번 판은 지켜보는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마력이 있다는 의미다.

지방선거 결과가 '매매하게' 끝난 순간, 많은 이들은 예상했을 것이다. 8월까지 이 지켜온 입씨름이 계속되리라는 것을. '싸움 구경

이 제일 재밌다'는 옛말이 있다지만, 싸움을 두 달 넘게 하고 있으면 구경하는 재미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전초전이 멋있거나 하면 모르겠는데, 당연히 아니다. 민주당을 오래 봐왔던 사람들은 근 10년 간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고 할 정도로 거친 말이 오간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한다. 2015년이나 2012년 전당대회는 더 했다면서. 의자가 날아다녔다면서. 원래 전당대회는 갈등이 터지는 장이라고.

그보다 더 문제는 싸움의 내용이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찾기 힘들다. '누가 대통령이랑 더 친하냐', '저 사람은 대통령이랑 사이가 나쁘다'는 내용이 주로 보인다. 갑자기 신천지에 알베까지 등장한다. 서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민주당엔 윤리위가 없다. 윤리심판원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싸워서 얻는 이득이 뭔지 알 수 없다. '같은 당' 사람들끼리 원수 대하듯 싸우면, 전당대회 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걸까. 오죽하면 '차리리 이번 전당대회를 스트레스 해소의 장으로 삼고 깔끔하게 털어냈으면 좋겠다'는 반응도 있을까.

지금 중요한 건 민생이다. 심지어 반도체는 호황이라고 하고 누구는 어마어마한 성과급을 받는데, 누군가는 더 어려워지고 월급은 그대로다. 그렇다면 '여당'의 전당대회는 좋은 정치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너무 이상적인 요구일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가려는 노력은 해야 본인이 정치를 소명으로 삼고 있다고 말할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제부터라도 남은 2주 간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 물론, 너무 큰 기대라는 걸 알면서도.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4일 (음 6월 2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취

48년생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60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납니다. 72년생 가는 곳마다 이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84년생 시간 활용을 잘 할 때입니다.



소

49년생 귀중한 물건을 분실할 실물수가 있습니다. 61년생 여행은 길하지 못합니다. 73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세요. 85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을것입니다.



로랑서

50년생 주위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62년생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이겨 나갈 것입니다. 74년생 일에 진척을 살펴며 천천히 진행하세요. 86년생 서남 쪽이 길방입니다.



도끼

51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마세요. 63년생 모든 것은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75년생 힘들게 노력한 만큼 운이 따르지 않습니다. 87년생 오늘 하루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

52년생 차분히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4년생 매사 항상 신중하세요. 76년생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88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 했습니다.



뱀

53년생 늦게 이루어지니 조금해 하지 마세요. 65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세요. 77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법입니다. 89년생 안정을 취하며 조금 여유를 갖는게 좋습니다.



말

54년생 작은 일에도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6년생 거래를 이루려면 반드시 상대를 잘 알아야 합니다. 78년생 당분간 일을 크게 벌이지 마세요. 90년생 오늘은 심신이 피곤합니다.



양

55년생 새로운 계획이 필요할 때입니다. 67년생 동남 쪽이 길방입니다. 79년생 성실하면 하늘이 도울것이니 노력하고 기다려 보세요. 91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지 조심하세요.



원숭이

56년생 조심 또 조심하세요. 68년생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인다면 가히 이롭고 좋을 것입니다. 80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92년생 배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열심히하세요.



닭

57년생 시기가 아주 좋습니다. 69년생 발전 일로에 있으니 격정마세요. 81년생 본인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니 상대방과 타협하세요. 93년생 하던 일이 잘 풀려 나가기 크게 성공합니다.



개

58년생 과음과 과식을 조심하세요. 70년생 당분간 사업확장은 하지 마세요. 82년생 집 안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94년생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으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돼지

59년생 힘든 고생을 합니다. 71년생 주변에 도움되는 사람이라곤 한명도 없습니다. 83년생 두가지 소망이 모두 이루어 지길 바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95년생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생활하세요.



## 김상회의四季

숨을 보다

석가모니부처님이 알려주신 수행법 중에 '아나빠나사피'가 있다. 한문으로 '출입식념'이라고 하며 호흡관 또는 수식 관이라고도 한다. 두 눈을 감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자세를 편안히 좌정한 후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대승불교 전통인 우리나라는 화두선이 가장 보편적인 수행방법이지만 남방불교 쪽에서는 숨의 들고 남을 지켜보는 아나빠나사피 수행을 중히 여긴다. 숨을 본다는 것은 정신과 물질을 관찰함으로써 무상고, 무아라는 존재의 실상을 통찰하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것이다. 필자가 주석하고 있는 서대문 종로로 월광사에서 기도 수행도 하고 있지만 편안하게 호흡을 지켜보며 마음의 평안과 힘을 키우는 '숨명상'을 삼삼오오 시간이 될 때마다 하고 있다. 숨이 멈추는 순간은 곧 명이 다하는 순간이다. 공기가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존재들이 공기 고마운 것을 모르고 평생을 지내듯 생명현상인 숨을 제대로 느껴보질 못하고 산다는 것은 삶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거창하게 붓다의 호흡 수행법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숨을 살아있다면 누구나 쉽다. 그러나 숨을 쉬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숨에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숨에 마음을 두면 우주가 이 숨 안에 머무름을 알게 된다. 나 아닌 내가 아바타처럼 바깥으로 향해 들떠 있음도 보게 되고 나라는 존재의 진면목을 마주하게 된다. 아, 그래서 붓다는 숨의 들고 남을 보라 한 것이구나 나 자신뿐만 아니라 존재의 실상을 보게도 되니 이를 일러 거창하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화두선 역시 다양한 공안으로서 화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성성적적함을 이루어 깨달음을 성취한다고 알려져 있고 결국은 고도의 집중을 요구하는 선정을 기반으로 가르침의 결이 결코 다른 것은 아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 발행·편집인      | 이장규                             | 편집국장              | 윤휘중 |
|-------------|---------------------------------|-------------------|-----|
| 인쇄인         |                                 | 중앙일보(주)           |     |
| 광고문의 / 독자센터 | 02)721-9851, 9826 / 02)721-9861 |                   |     |
| 일간 메트로      | 서울 가00206                       | 2002년5월28일 제5966호 |     |
| 일간 메트로경제    | 서울 가50111                       | 2017년3월09일 제2070호 |     |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점주 10% 모이면  
가맹본부와  
협상 가능해진다  
L1



Life

면세점  
외국인 매출  
5조 눈앞  
L4



# 나눔 넘어 홀로서기 돕는다... 우리사회 밝히는 '희망의 별'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 우리금융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각지대와 다양한 취약 계층이 존재한다. 사회적 안전망 바깥에서 어려운 삶을 영위하는 이웃,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 정서적·문화적 차이를 겪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弱者)가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약자와의 동행'을 사회공헌 활동의 핵심 가치로 제시한다.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지원하는 '굿윌스토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는 장학프로그램, 쪽방촌 이웃들의 건강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구강관리센터'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 ◆ '공평한 삶의 기회'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2023년부터 '굿윌스토어'를 운영하는 밀알복지재단과의 후원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속가능한 고용을 지원하고 있다.

'굿윌스토어'는 개인이나 기업이 지원한 기부품을 판매하며, 판매 대금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공헌형 매장이다. 우리금융과의 협약 이전에도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나 정부 지원금을 재원으로 일부 매장을 운영했으며, 우리금융과의 협약 이후에는 우리은행 점포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매장 수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굿윌스토어'는 공평한 기회를 얻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인 발달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 임금을 지급하며, 장기간의 고용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한다. 장애인 근무자들의 만족도 높은 만큼, 퇴사율은 업계 최저 수준이다.

굿윌스토어는 지역사회에도 접근성 높은 사회공헌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은 버려지기 쉬운 의류나 가전제품 등을, 기업들은 장기 보관이 어려운 상품을 기부하면 기부된 물품은 지역사회에 저렴한 가격에 공급된다. 굿윌스토어를 통해 판매된 물품 대금은 발달장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다.

우리금융은 굿윌스토어에 매년 30억원을 후원한다. 후원금은 점포를 늘리고 발달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 전국에서 우리금융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 중인 굿윌스토어는 50곳 이상으로, 발달장애인 약 600명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우리금융은 오는 2030년까지 전국에 100곳의 굿윌스토어를 개점해 1000개 이상의 발달장애인 일자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우리은행 본점에 위치한 굿윌스토어 밀알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위치한 굿윌스토어 밀알우리금융점을 찾은 고객이 기부품을 구매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 장학생 및 장학생 가족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우리금융

약자와의 동행 위한 사회공헌 펼쳐  
개인·기업 기부품 판매 '굿윌스토어'  
발달장애인에 안정적인 일자리 공급  
매년 30억 후원... 점포·일자리 늘려

장학재단 통해 다문화가정 정착 도와  
다문화 인식 개선, 자녀세대에 장학금

무료 치과진료, 청각장애 수술 지원 등  
취약계층 삶의 질 높이는 의료 지원  
아동·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기회도

우리금융점에서 만난 굿윌스토어 관계자는 "한국에서 운영되는 굿윌스토어는 직업 교육을 마치더라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라며 "우리금융과의 협약을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용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 '다문화가족' 인식 제고와 지원

우리금융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자녀세대에게는 공평한 학업 기회를 위한 장학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한국 사회는 지난 2024년 말 전체 인구의 5%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이나 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합류하는 외국인도 빠르게 늘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매년 '대한민국 다문화 페스타'를 개최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문화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다문화가족 지원단체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종사자에 대한 시상도 진행해 다문화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민간 활동도 지원한다.

귀화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의 자녀세대를 위한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매년 초 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세대별 장학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1200명 이상의 장학생을 지원하며, 비용이나 기회 등을 이유로 포기하기 쉬운 예·체능이나 어학 등 특기를 위한 별도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울러 장학생 간 교류를 지원하며,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 ◆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

우리금융은 쪽방촌 거주민에 무료 치과진료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구강관리센터',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리함께 미래로', 취약계층 청각장애 아동의 인공와우수술을 지원하는 '우리루키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단순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삶의 질 자체를 개선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이 서울시와 사단법인 행동하는의사회와 연계해 운영하는 '우리동네 구강관리소'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용산구 동자동 두 곳에서 운영된다. 의료접근성이 낮고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큰 쪽방촌 주민들에게 무료 치과 진료를 제공하며, 간단한 진료와 구강관리 뿐만 아니라 틀니, 보철, 신경치료 등 의료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의 '우리루키 프로젝트'는 비용 등을 이유로 수술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각장애 아동에 수술 및 재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술 이후에도 언어재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참여 가족 간 교류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는 등의료적 지원과 정서적 지원을 결합한 '종합 지원'을 제공한다.

문화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활동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우리금융미래재단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연극·뮤지컬 관람을 지원하는 '우리함께 무대로'를 운영한다. 특히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아동·청소년에게는 전문적 인력을 통한 진로 교육과 창작 공연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한 미래세대의 성장을 함께하며, 사회를 위해 헌신한 군인·소방관·경찰 등 영웅들의 영예로운 삶을 후원 한다"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메트로 한줄뉴스



▲'청문회 태도 논란' 문진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사임서 제출  
▲김병지 "강원FC 700억원 홍보 효과" 발언에... 축구팬 "세금 지원 줄여라" 싸늘 /사진 뉴시스

▲NC다이노스, 정보보호 인증 획득...프로야구 최초  
▲'글러브 이물질 의혹' 고우석, 10경기서 8경기로 징계 감경

▲소프라노 조수미, 아시아 최초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  
▲日 그룹 'JO1', 서울 콘서트 취소...송파구 개포소 봉쇄 시위 여파